

Sulwhasoo

Vol.58 September/October 2013





꽃 향기야, 질어지라

여름 정원의 꽃 향기가 달콤하다면, 풀무지 사이로 피어나는 가을꽃은 무르익은 별을 받아 향기가 그윽하다. 가을꽃처럼 붉은 광을 지닌 가락지로 가을 단장을 채비하면 어떨까.

꽃날개 옆부터 인가를 내려가는 필(八)자를 케어하는 데 효과적인 예소침크림&패치, 호박과 산호가력지는 서울시 무형문화재 임익평 옥장의 작품으로 가원공방. 표지의 산호 장식 단추는 담연, 장미목 과반과 접시는 정소영의 식기장. 뒷표지의 호박목걸이와 호박 원석, 오른쪽 페이지의 팔짱과 호박반지는 모두 서울시 무형 문화재 임익평 옥장의 작품으로 가원공방. 마미채(馬尾齋)는 백경현 디자이너의 작품으로 KODF갤러리숍.

婁

雪花秀

**맨 얼굴로도 하루 종일 윤이 나는 피부-
피니셔가 만드는 놀라운 차이입니다
설화수 미안피니셔**

아침 저녁으로 정성 들여 관리하는 스킨케어, 그 효과는 왜 금방 사라질까요? 스킨케어 마지막 단계에 사용하여 전체적인 효능을 극대화하는 미안피니셔- 녹차와 인삼의 조화로 완성된 녹삼효™가 피부에 보호막을 형성하여 앞서 바른 성분들을 단단히 지켜주고 스킨케어 효과를 강력하게 끌어올려 줍니다 맨 얼굴로도 하루 종일 윤기 있게 빛나는 여자의 피부를 위해 이제 윤조에센스로 시작하고, 미안피니셔로 완벽하게 마무리하세요

근본에서 찾은 더 좋은 대답, 설화수 미안피니셔

Sulwhasoo



가을, 추향(秋香)에 머무르라

It has been said that the people who enjoy all four seasons are gifted by the Creator of the Universe. Living on land with four seasons, the Korean people are blessed with the privilege to enjoy such natural abundance. During the autumn season, when everything is bursting with bright colors and fragrances, you can remind yourself of the blessing bestowed upon you. The leaves on the trees bring excitement with their ever changing colors, while the flowers on the ground transition from bright to toned-down hues. The ripened grains and fruits in the fields show the value of labor from the past year. The grains in the hands of the farmers harvesting them are full and the pomegranates in the hands of the women preparing for the Korean Thanksgiving are red and ripe enough for the kernels to burst. The pumpkins hiding in the red soil are golden and ripe. When the fragrance of the dried petals fills the air under the autumn sunshine, it is considered as the climax of the season.

The Korean ancestors called the hue that conveys this image as the color of autumn fragrance. It seems to be stained with pink one minute and orange the next. Before you know it, the light brown even shows the color of red from the Korean paintwork in the traditional palace. It is truly amazing that the Korean ancestors referred to this color, which was difficult to express in words, as the color of autumn fragrance.

사계절을 모두 누리는 민족은 우주의 만물을 만들고 다스리는 조물주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라 했다. 뚜렷한 사계절이 빛나는 땅에 사는 우리가 계절이 주는 축복을 다시 말해 무엇하랴만, 그래도 그 축복을 곱씹고 싶은 계절이 있으니 바로 가을이다. 가을은 '눈이 부실' 만큼 찬란한 빛깔과 향기를 가졌기 때문이다. 드높은 하늘을 배경 삼은 나뭇잎은 그 빛깔이 바뀌어 천지를 물들이고 땅에 기댄 꽃은 그에 화답하듯 화려한 빛을 견고 잔잔해진다. 들판에 익은 곡식과 열매는 1년 동안 공들인 노동의 가치를 드러낸다. 추수하는 농부의 손에 들린 곡식은 찰지고, 한 가위를 준비하는 아낙의 손에 들린 석류는 검붉게 익어 알맹이를 터트린다. 여기 붉은 흙무지 속에 숨은 호박은 여물어 황금빛이구나. 가을별에 마른 꽃잎의 향이 짙어지기까지 하면, 그야말로 추향(秋香)이 절정이다.

우리 선조들은 이런 심상(心狀)을 고스란히 담은 색을 추향색(秋香色)이라 불렀다. 분홍빛을 머금었나 싶으면 이내 주홍빛이 엿보이고, 어느새 궁궐의 단청에 칠해진 붉은빛까지 모두 엿보이는 옅은 갈색. 한마디로 단정하기 어려운 가을의 빛깔을 가을 추(秋)에 향기 향(香) 자를 붙여 추향색이라 붙인 선조의 눈매에 탄복할밖에. S

에디터 김희성 사진 이종근 세트스타일리스트 최서윤(다락) 도움 주신 곳 가원공방(02-2278-0250), 담연(02-645-6464), 정소영의 식기장(02-541-6480), KCDF 갤러리숍(02-733-9041)





26 66

Sulwhasoo

September/October 2013

자연과 상생하는 빼어난 아름다움, 설화수

설화수의 시작은 바로 한방 화장품의 역사와 함께합니다.
 한방 화장품의 대명사라는 명성을 얻기까지는 여성의 피부에 대한 애정과
 한방 성분애 대한 열정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반드시 우리 땅에서 움트고 자란 순수한 국산 한방 성분만을 사용하겠다는 의지는 설화수의 자존심입니다.
 이 땅의 좋은 한방 성분을 찾기 위한 노력과 애환이 제품 하나하나에 오롯이 담겨 있습니다.
 설화수의 이러한 역사와 철학은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그러나 고집과 신념을 지닌 채 계속되었습니다.
 자연을 거스르지 않으며 상생(相生)하는 설화수의 정신은 옛 여인들이 지닌 아름다움의 원천이기도 합니다.
 모든 사물의 시작은 자연입니다. 자연에서 취한 것을 통해 아름다움을 가꾸고,
 자연과 하나되는 자연과의 상생, 이것이 바로 설화수가 추구하는 미감입니다.

고은여성문화지(古恩女性文化誌) (Sulwhasoo)는 예스러운 것을 사랑하는 여성을 위한 문화 교양지를 뜻합니다.
 전통적인 것이 선사하는 단아함을 현대적인 미감과 접목한 전통과 현대의 상생을 추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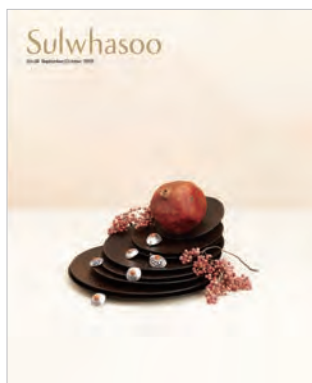


72



86

미학자를 매료하다	한국의 미에 대한 진심을 담다, 혜곡 최순우	04
집안 단장	전통에 모던을 입히다	06
몸 단장	목을 감싸는 멋	08
한국 문화 읽기	갓 Gat	10
피부 섬기기	빛을 채우고, 빛을 살리다	12
옛 삶을 돌아보다	다양한 놀이로 스스로를 위로했던 조상들	16
격조 높은 삶	향기롭게 피어나리니	22
애향문화(愛香文化)	그윽한 향기로 심신(心身)을 씻다	24
어우러지다	향기로 그윽하다	26
살피보다	옛사람들의 향기 제조법	34
세밀하게 보다	정조, 사부곡을 담아 신세계를 짓다	36
설화수와 인연을 맺다	팝페라 테너 임형주, 성찰을 담은 내밀한 열정	44
월드 헤리티지	이탈리아 전통의 가치를 담은 디자인, 비토시(Bitossi)	50
아트 클래스	공간을 탈바꿈시키는 신비한 미술같은 체험	54
작가를 만나다	도예가 이현정	60
설화보감	살피라, 가을이면 은행이 노랑계 떨어지니	66
설화수의 사계	붉은 단풍이 곱구나	72
국악기행	판소리의 성지, 남원의 소리를 찾아서	76
설화문화전	활, 그 팽팽한 힘을 돌아보다	82
설록다원	차, 청정함과 고요함을 말하다	86
미색보감	탱탱한 피부를 위한 첫걸음	88
마음 단장		90
문화 즐기기		93
Insides Sulwhasoo		94
독자 선물		96



Sulwhasoo's designs convey the aesthetics of color based on Ohbangsaek (the five traditional colors of Korea). The cover of Sulwhasoo Magazine's 2013 September/October Issue has shown the application of the light brown color, which was part of the Korean traditional color of autumn, to the design of the Microdeep Intensive. The color of deep autumn is captured by Mother Nature dressed up with ripened fruit and flowers, and adorned with glamorously colored jewelry.

설화수의 디자인에는 오방색에 기초한 색채미학이 들어있다. 2013년 9/10월호 설화수 매거진의 표지에서는 예소침의 디자인에 적용된 옅은 갈색을 한국 고유의 빛깔인 추향색(秋香色)에서 찾아 봤다. 대자연이 무르익은 열매와 꽃으로 단장하는 가을, 빛깔 고운 보석으로 빛은 장신구에도 무르익은 가을의 빛깔이 담겼다.

●발행인·서경배 ●편집인·유재천 ●발행처·(주)이팩·서울시 중구 창계천로 100번지 시그니처빌딩 ●제작·Luxury MC팀 ●문의·태윤희 02)709-5525
●편집·디자인·Solution Co., Ltd. ·서울시 강남구 청담2동 85-3 남한강빌딩 3층·Vip Marketing Dept. 02)3443-6923 www.ineighbor.co.kr 편집·김희성, 신정희 디자인·조윤형 마케팅·최문선 ●발행일·2013년 9월 1일(통권 제58호) ●사진·GURU visual 02)747-6118 ●시스템 출력·Scan & Photoengraving Ing Process ●인쇄·(주)태신인팩 02)853-6574 www.inpack.co.kr 인쇄인·사경현

〈Sulwhasoo〉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Sulwhasoo〉에 게재된 글과 사진의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Sulwhasoo〉에 게재된 글과 사진은 〈Sulwhasoo〉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니라 필자의 생각을 나타낸 것입니다. 〈Sulwhasoo〉는 격월간지로서 월간 〈Neighbor〉를 발행하는 Solution Co.에서 제작 대행하고 있습니다.

미학자를 때려하다



한국의 미에 대한 진심을 담다,
혜곡 최순우

혜곡 최순우 선생은 <한국의 미술>과 <무량수전 배흘림기둥에 기대서서> 등의 책을 출간하여, 많은 이들에게 미술문화의 거장으로 각인되었다. 한국인으로서의 삶을 사랑하고 아끼며 소중히 가꾸어 온 선생의 삶 자체가 한국미의 실체라 할 만하다. 이처럼 선생은 한국 미술의 발전에 훌륭한 업적을 남기며 한국 미술의 특성과 중요성 그리고 문화재 등에 대한 큰 안목을 지닌, 우리 시대가 낳은 한국 미술의 거목이다. 최순우 선생이 거주했던 성북동의 한옥은 당대 예술가들의 사랑방 역할을 하던 곳이었다. 그의 삶과 철학이 한국미로 발현되는 산실이었던 것이다.

특히 선생은 한국의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이 부드럽으면서도 섬세한 선(線)으로 이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무한한 자비를 머금은 미소에는 인간적이면서도 오묘한 아름다움이 흐른다고 여겼다. 한국의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은 굳더더기가 조금도 느껴지지 않으면서 강조와 통일감을 조화롭게 조형화시켜 한국미의 정수를 드러낸 경우라 할 수 있다. 한국미의 진수를 담은 이 금동미륵보살 반가사유상을 선생은 ‘무한한 자비를 머금은 한국인의 미소’라 생각한다.

이처럼 최순우 선생은 한국의 공예 건축 등 여러 분야에서 탁월한 감식력과 감식력을 지녔으며 특히 회화 분야에서 선생의 심미 분석은 주목할 만하다. 고구려시대의 고분벽화에 나타나는 우리 화가들의 그림에는 색채의 농담(濃淡)으로 가름하는 음영법(陰影法)의 완숙미가 담겨져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고려시대의 대표적인 작품인 이제현(李齊賢)의 <기마도강도(騎馬渡江圖)>는 약간 섬약하면서도 부드러움을 느낄 수 있는 특이한 분위기를 발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적(餘技的)인 문인화의 성향과 고구려적인 풍토 양식 등을 담고 있다고 언급하였는데, 이러한 면들을 ‘한국인의 조형 기질의 발산’이라고 여겼다. 선생은 특히 고려시대 당시에 불교회화 외의 회화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고려 회화를 통해 드러난 한국인의 조형미는 기질적으로 이미 객관성과 보편성을 두루 갖추었다고 판단했다.

또 선생은 고구려 무용총의 수렵도에 대해서도 또 다른 심미 관점에서 접근하며, 고구려 고분은 초기 것일수록 고졸미(古拙美)가 더 농후하게 흐르는 것으로 보았다. 이 고졸미는 고풍스러우면서도 은은함이 깃든 것으로 투박한 선이나 형태 혹은 색감이 고구려인의 기개와 삶을 반영하는 심미 경향이라 생각하였다. 특히 고구려의 수렵도에는 고졸미와 함께 독특한 생동감이 흐르고 있음에 주목하였다. 이 생동감은 고구려 후기 고분벽화의 사신도(四神圖)에도 선명하게 드러나며 웅휘(雄輝)로 움과 씩씩함을 담고 있다고 하였다. 고구려시대 고분벽화에 대한 선생의 한국미적인 심미 분석은, 한국의 미를 슬픔과 연약함이 서린 비애의 미로 본 일본의 미술사학자 야나기 무네키의 견해와는 판이하게 다르다. 고구려 후기 고분벽화에 나타난 일월성신과 비천상, 연화문양, 사신도 등의 다양한 그림들은 매우 동적이면서도 활달한 생동감을 지녔을 뿐만 아니라 끝없는 생명성과 운동력을 지닌 아름다운 한국 조형미의 정수라는 것이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의 문화와 정신을 새롭게 일깨워 준 혜곡 최순우 선생의 미적 견해는 한국의 정서가 배어 있는 전통미를 존중하고 한국의 문화와 미술을 사랑했음을 의미한다. 5

에디터 신정희 글 장준석(미술평론가, 한국미술비평연구소 소장)



1 최순우 선생은 ‘나는 무량수전 배흘림기둥에 기대서서 사무치는 고마움으로 이 아름다움의 뜻을 몇 번이고 자문자답했다’라고 책에 쓸 정도로 아름다움에 감탄했다. 2 고고미술사학자이고 미술평론가였던 혜곡(兮谷) 최순우(1916~1984). 개성 송도고보를 나와 개성박물관, 서울국립박물관을 거쳐 국립중앙박물관장에 취임한 이후 죽을 때까지 평생을 박물관인으로 마쳤다. 저서로는 <무량수전 배흘림기둥에 서서> <나는 내 것이 아름답다> 등이 있다.(사진제공 영주시청, 최순우 옛집)



전통에 모던을 입히다

전통의 색채는 간직한 채 현대적인 미감과 만나
조화를 이룬 물건들을 소개한다.



1 삼베에 먹으로 색을 그레이션한 오브제는 공평아트샵. 2 꽃잎 모양이 아름다운 수프볼세트는 스튜디오블랭크. 3 전통공예 기법 마미체(馬尾滯)로 제작한 커피필터는 KODF갤러리숍. 4 단청에 쓰이는 '금문' 문양의 컵받침은 KODF갤러리숍. 5 한국 고유의 문양을 현대적으로 재배치한 테이블웨어는 김은하 작품. 6 부채의 주름 형태를 응용한 와인백은 김기은 작품.

집 안을 은은하게 만드는 호롱불, 목을 편안하게 받쳐 주는 나무 목침, 삼베로 만든 오브제. 전통적인 물건이라고 여겨지던 대상에 현대적인 감각과 아이디어가 더해지면서 새로운 제품으로 완성된다. “옛것을 본받아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다”는 ‘범고창신’ ‘온고지신’의 가르침을 바로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 전통에 대한 고유의 특성을 유지하고 하나의 물건을 만들기까지 온갖 정성이 들어간 전통 기법의 아이템들은 집 안을 새로운 분위기로 만드는데 하나의 방점을 찍어 줄 소품이 될 것이다. 그뿐인가. 옛 조상들이 지켜 온 고유의 아름다움과 그 정신이 작은 물건 하나에도 숨 쉬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우리가 지켜야 할 전통문화에 현대적인 아이디어와 새로운 시각을 담은 소품 하나는 집 안의 품격을 높여 준다. ‘과거는 오래된 미래’라는 말처럼 우리의 역사와 문화 속에 살아 숨 쉬는 전통의 물건들이 지금 시대에 맞게끔 각색된 다양한 제품들을 만나보자. S

에디터 신정희 사진 임태준 스타일리스트 최서윤(다락) 어시스턴트 손예희, 김아영 도움 주신 곳 공평아트샵(02-3210-0071), 스튜디오블랭크(010-9342-4117), KCDF갤러리숍(02-733-9041), 김은혁(010-8550-1991), 김기은(010-4017-4757), 김지현(010-8892-1103), 진주셀(02-2253-7585), 정소영의 식기장(02-541-6480)



7



8



9



10



11



12



13

7 나무박스에 넣어 보관할 수 있는 도자기로 제작된 체스는 정소영의 식기장. 8 단아한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순백의 스톨은 김지현 작품. 9 향나무에 자개로 화려하게 장식한 도미는 진주셀. 10 전통 옷칠을 해 광택이 아름다운 잔은 공평아트샵. 11 아름다운 산등성이의 유려한 곡선을 모티브로 한 목침산은 스튜디오블랭크. 12 감썩한 무당벌레 연적은 공평아트샵. 13 납작한 모양이 독특한 호롱은 정소영의 식기장.



1

목을 감싸는 멋

올가을, 쌀쌀한 바람도 이겨 낼 수 있는 멋스러운 아이템을 찾고 있다면,
멋있는 의상에도 포인트가 될 머플러와 목걸이를 추천한다.



2



3



5



6



4

1 부귀영화를 기원하는 모란 문양의 스카프는 공평아트샵. 2 가지와 방아깨비 문양이 그려진 스카프는 까마중. 3 노란빛의 호박 빛깔이 멋스러운 목걸이는 신유정 작품으로 나락실. 4 흔치 않은 깊고 고운 빛
깔의 자만옥 매듭 목걸이는 나락실. 5 섬세한 세공으로 새의 왕, 봉황을 장식한 은 목걸이는 리은공방. 6 은행잎 색깔을 닮은 노란 호박과 그 향기를 맡고 찾아온 나비를 모티브로 한 은 목걸이는 리은공방.

차가운 바람 탓에 거리에 나서면 옷깃부터 여미게 된다. 몸을 감싸는 재킷에 목까지 올라오는 니트 등 환절기 보온을 위한 옷차림을 하더라도 포인트를 줄 수 있는 아이템은 빼놓을 수 없다. 다채로운 컬러의 목걸이는 멋진 의상에 포인트를 줄 수도 있고 부드러운 머플러로 목을 감싸면 시각적인 아름다움은 물론 따뜻하게 외출할 수 있다. 우리 선조들은 옷차림에도 멋은 물론 예를 중요시했다. 한복을 입을 때에는 두루마기 위에 꼭 목도리를 매는 것이 예의였다. 또 목걸이 역시 옛 여인들이 즐겨 찾는 장신구였다. 특히 신라시대에는 늘어지는 끈에 비취, 수정, 마노 등으로 만든 곡옥을 달아 멋을 낸 목걸이를 즐겨 착용했다. 이번 가을에는 전통의 미감을 살린 목걸이와 머플러로 단장해보면 어떨까. 가령 부귀영화를 기원하는 모란 문양의 스카프나 가정의 평안을 기원하는 석류 문양이 새겨진 스카프는 화려한 문양의 아름다움과 더불어 좋은 의미도 담고 있어 더욱 만족스러운 아이템이 될 것이다. S 에디터 신정희 사진 임태준 스타일리스트 최서윤(다락) 어시스턴트 손예희, 김아영 도움 주신 곳 공평아트샵(02-3210-0071), 나락실(02-723-9426), 까치공방(02-551-0900), 소연(02-736-5949), 아신(02-734-4900), 까마중(043-219-1088), 아원공방(02-735-3482), 리은공방(02-722-2789)



8



9



10



11



12

7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 색동 문양이 새겨진 실크 스카프는 김제희 작품으로 까치공방, 신호와 호박의 컬러 조화가 돋보이는 목걸이는 김연경 작품으로 공평아트샵. 8 허안 곡옥 장식으로 은은한 멋을 풍기는 목걸이는 아신. 9 포도 넝쿨 문양에 터키석의 조합이 모던한 느낌의 목걸이는 김승희 작품으로 소연. 10 전통 조각보의 독특한 조형미를 현대적 감각에 맞게 재해석한 머플러는 까치공방. 11 민화 한 폭을 그대로 스카프에 옮긴 듯 예술적인 감각의 스카프는 까마중. 12 은행잎 두 장을 겹쳐 놓은 듯 섬세하게 조각된 목걸이는 남기상 작품으로 아원공방.

갓 Gat

조선시대 선비들의 풍모를 드러내는 고유한 멋.



흰 두루마기에 갓을 쓴 선비의 모습은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드라마 사극 속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모습이다. ‘의관을 정제한다’라는 말처럼 예부터 옷매무새를 단정히 하는 것은 선비의 기본이었고 곧은 정신을 표현하는 거울이었다. 조선시대 남자의 관모를 대표하는 갓은 곡선미를 추구하는 우리 고유의 조



형적미를 담아내는 것뿐만 아니라 반투명의 검은 빛 광택에서 느껴지는 격조는 일상적인 도포의 풍성함과 대비를 이루며 선비의 기품을 오롯이 표현한다. 또 햇살이 내려앉은 양태 위에 은은한 그림자와 보일 듯 말 듯한 얼굴 모습은 우리나라 고유의 정제된 아름다움까지 나타내고 있다. 그만큼 ‘갓’은 조선시대 선비들이 갖추었던 의관의 상징이요, 선비정신을 드러내는 가장 대표적인 물건이다.

조선시대 양반 갓은 성인 남자가 머리에 쓰던 관모(冠帽)로 머리를 덮는 부분인 모자(帽子)와 얼굴을 가리는 차양 부분인 양태(凉太)로 이루어진다. 본래 갓은 햇볕이나 비와 바람처럼 외부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실용적인 목적이 강했다. 그러나 재료, 형태, 제작법이 다양하게 발전하면서 사회성을 가지는 관모의 성격을 갖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흑립(黑笠)을 갓이라고 하여 벼슬아치들이 관청에 드나들 때 썼지만 후대에는 양반의 신분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었다. 흑색을 기본으로 색이 달라지기도 했는데 붉은 옷칠을 한 추립은 문신 당상관이 착용하였고, 흰색 포로 짠 백립은 상복에 착용하는 관모로 국홍(國紅)에 국민이 사용해 상중임을 나타냈다. 갓은 고정된 모양이 있는 것이 아니었다. 구한말에 들어서면 서양 모자처럼 양태가 좁은 것도 있고 조선시대 왕들이 쓴 갓처럼 양태가 넓은 갓도 있다. 갓은 시대에 따라 모자의 둘레나 높이가 달라지기도 했는데 유행에 신경 쓰지 않을 것 같은 선비도 실은 멋을 즐겼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 민족 의생활의 필수품이었던 갓도, 옷차림이 서구식으로 변하고 단발령 이후 점차 수요가 줄어들면서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이제 선비도 없고 갓도 자취를 감춘 시대지만 언제나 의복을 단정히 하고, 올곧은 마음가짐을 유지한 선비정신만은 잊지 말아야겠다. S

에디터 신정희 사진 임태준 갓 중요무형문화재 입자장 박창영

Gat, which was the official hat worn by noblemen in the Joseon Dynasty, not only captured the traditional beauty of curves, but also expressed the dignity of classical scholars with the immaculate image of the black translucent hat contrasting with the everyday traditional robe. Also, the subtle

shadow under direct sunlight and the almost hidden face under the gat expressed the refined beauty of Korean tradition. Gat was the symbol of attire for the classical scholars and noblemen from the Joseon Dynasty.

Gat of the nobility from the Joseon Dynasty was the official hat worn by adult men and consisted of the hat part to cover the head and the visor part to shield the face. Gat was practically designed in order to protect the face from nature's elements such as the sun, rain, and wind. As various materials, designs, and production methods have been developed, it gained a remarkable social status as an official hat. What is generally known as a gat is the Heungnip, which was worn by the government officials at work. However, it became the tool that expressed the social class of nobility in the late Joseon Dynasty. Heungnip was worn everyday outside and even when at home. It was generally black in color, but there were other colors as well. Churip in red lacquer was worn by certain government officials and the Baengnip, which was covered by a white cloth, was traditionally worn during a national funeral. Gat did not have a fixed shape. In the late Joseon Dynasty, there were designs with narrower visors similar to western hats or wider visors such as the ones worn by the kings. The circumference and height of a gat also varied from time to time, showing that classical scholars actually enjoyed dressing up. Nowadays, classical scholars and the gat are no longer around, but we must not forget the spirit of the classical scholars who symbolized elegance and righteousness.

피부 섬기기

빛을 채우고, 빛을 살리다

피부에 고운 윤기가 흐르고 어린 빛이 살아 있다면 민낯으로도 아름다움에 부족함이 없지만, 여름을 지나 온 피부는 어느새 빛이 사라져 있다. 연중 가장 찬란한 빛이 내린다는 가을은 피부의 빛과 윤기를 살릴 때다.



가을 밤, 희고 질긴 빛을 가진 만월(滿月)을 보면 폐월수화(閉月羞花)라는 말이 떠오른다. 미인을 이르는 이 말은 그 미색(美色)이 얼마나 대단하면 '달이 숨고, 꽃이 부끄러워할' 정도였을까. 우리 선조들에게 미인은 요란한 화장과 치장으로는 완성될 수 없는 격이 다른 존재였다. 복숭아처럼 고운 안색을 가진 피부에 생명의 기운이 넘치는 윤기가 흘러 멀리서 보아도 귀태가 흐르는 여인이라야 미인이라 칭송했다. 놀랍게도 수백 년의 세월이 흘렀건만 현대 미인의 기준 역시도 이와 다르지 않다. 예나 지금이나 귀한 인상을 만들어 주는 그 첫 번째가 피부에 흐르는 빛, 윤기 아닐까. 햇볕 아래서도 반질반질 매끄러운 피부, 은은하게 감도는 빛이 느껴지는 피부는 모든 여성의 워너비다. 우리나라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동서양이 두루 '밝고 투명하며, 광채가 흐르는 피부를 가진 여성'을 두고 아름답다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아름다운 피부는 동서고금을 막론하는 미인의 바로미터인 셈이다. 지난여름을 견디며 푸석하고 건조해진 피부에 윤기를 흐르게 하고 싶다면 특별한 처방이 필요하다. 설화수 여민마스크와 미안피니셔가 보다 효과적이며 간편한 방법을 제안한다.

30대 중반을 넘기며 나타나는 노화를 완화시키기 위해 여러 기능성 화장품들이 출시되고 있는데, 그중 여민마스크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어두워진 피부를 맑게 하고 여름내 지친 피부의 탄력감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제품. 여민마스크는 피부 밀도를 촘촘하게 해 주는 고밀착 한방 마스크로 이마부터 턱, 광대뼈 라인에 이르는 '동안 존'을 집중 케어할 수 있다.

여민마스크는, 예부터 피부 미용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진 영실(쥘레의 열매) 발효액을 총 14일에 걸쳐 제조한 다음 미생물을 배양하고 발효시킨 시트를 마스크 모양으로 재단하여 영실과 홍삼사포닌, 안색

On an autumn night, the full moon, with its bright and long-lasting radiance, reminds you of the phrase Pyewolsuhwa(閉月羞花). Referring to beautiful women, it means sublime beauty that “made the moon hide and the flower bashful.” For our Korean ancestors, women could not be made beautiful by glamorous make-up and ornamentation. Women were called “beautiful” only when their complexion was as fine as a peach, when they were radiant and vibrant, and when they looked elegant even from afar. Amazingly, how we determine beauty today, hundreds of years later, is not very different. Since the olden times, the first requisite of a precious look has been the radiance of the skin. Every woman thus wants to have skin that is soft and smooth even when under the sun, with subtle radiance from within.

This is not just in South Korea. Considering that both the East and the West say that beautiful women have “bright, clear, and radiant skin,” beautiful skin has always been the barometer of overall beauty. If you want to make your skin-which has been made rough and dry by the scorching summer-radiant, you need special skincare formulas. These are Sulwhasoo INNERISE COMPLETE MASK and LUMINATURE ESSENTIAL FINISHER, which offer simpler yet more effective skincare.

Various functional cosmetics have been released to relieve the signs of aging that appear after the mid-30s. Among them is INNERISE COMPLETE MASK, a product that clarifies your skin, which begins to lose radiance as you age, and restores its resilience, which has diminished throughout the summer. INNERISE COMPLETE MASK is the Korean traditional herbal mask that densifies the skin and provides intensive care for the forehead, chin, and cheekbones. Wild rose fruits are fermented for 14 days, and the fermented sheet is formed into the shape of a face mask and is carefully filled with

영실 발효액을 사용해 14일에 걸쳐 완성되는 고밀착 한방 발효마스크. 여민마스크는 이마부터 턱, 광대뼈 라인에 이르는 '동안 존'의 피부 밀도를 촘촘히 해 피부에 어린 빛, 결, 선을 찾아 준다. 지공 예단청 브로치는 KCDF갤러리숍.



을 맑게 하는 옥죽 등의 성분이 들어간 에센스를 투입하는 단계를 밟아 정성스럽게 완성한다. 오랜 기다림 끝에 완성된 영실 발효 셀룰로오스 시트는 치밀한 망상 구조를 갖고 있어 부드럽게 피부를 감싸안듯이 착 달라붙는 밀착성이 좋다. 사용 후 피부가 은은하게 빛나고 쫀쫀해진 느낌인 데다 시간이 지날수록 촉촉하면서도 빛나는 안색, 탱탱한 탄력감과 더불어 한결 촉촉해진 피부를 느낄 수 있다.

여민마스크로 피부서부터 차오르는 빛과 탄력을 보살폈다면, 이제 완벽한 마무리를 위해 미안피니셔를 꺼내들 차례다. 피부에 건강함을 느낄 수 있게 '생 윤기'를 선사해 줄 미안피니셔는 기초 제품의 마지막 단계에서 사용하는 신개념 제품이다. 미안피니셔가 선사하는 '생 윤기'는 피부 겉표면에만 흐르는 반짝임이 아니다. 보습력을 유지해 주고, 영양막을 형성하는 미안피니셔를 아침에 사용하면 메이크업이 잘 받으면서도 생동감 있는 피부가 완성된다. 밤에도 기초 손질의 마지막 단계에서 사용하면 윤기가 흐르는 예쁜 피부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

녹차와 포제한 홍삼 성분을 바탕으로 건강한 상태의 피부에서 뿜어져 나오는 이상적인 윤기, 바로 격이 다른 '생 윤기'를 선사한다. '생 윤기'를 보다 효과적으로 경험하고 싶다면 이마와 미간, 뺨 부위에 덧발라 주자. 귀한 윤기가 얼굴에 감도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올 추석에는 가을이면 늘 염려하게 되는 피부의 푸석함과 거친 피부를 대신 빛나는 안색과 건강한 윤기로 보름달 앞에서 보자. 올해는 달님이 숨을 정도의 귀한 윤기가 당신의 피부에서 빛나기를 기원한다. S

에디터 김희성 사진 이종근 스타일리스트 최서운(다락) 도움 주신 곳 광주요(02-3442-2054), KCDF갤러리숍(02-733-9041)

가장 한국적인 원료로 꼽히는 인삼과 녹차 성분
이 함유된 미안피니셔는 스킨케어의 마지막 단계
에 사용하는 신유형 에센스. 피부를 부드럽게 감
싸는 텍스처가 하루 종일 매끈하고 생기 있는 피
부로 표현해 주며 건강한 '생 윤기'를 선사한다.
백자 달항아리는 광주요.

the serum of wild rose, red ginseng saponin, and Polygonatum roots, for a brighter complexion. The fermented wild rose bio-cellulose sheet is structured into a dense mesh to smoothly enhance its skin affinity. It enhances the radiance and firmness of your skin and will leave your skin suppler, brighter, firmer, and denser over time.

Once you have filled your skin with radiance and resilience by applying INNERISE COMPLETE MASK, it is time to apply LUMINATURE ESSENTIAL FINISHER for a flawless finish. LUMINATURE ESSENTIAL FINISHER, a new type of product for use in the last step of the basic skincare regimen, will make your skin healthier and thus even more radiant. The "natural radiance" of LUMINATURE ESSENTIAL FINISHER will make your skin glow not only from the surface but from deep within. Using LUMINATURE ESSENTIAL FINISHER in the morning will retain your skin's moisture and will form a nutritional barrier on your skin, giving it utmost vitality and preparing it for makeup. Also, apply it as the last step of your skincare regimen at night, for pretty skin that stays radiant all night and even in the morning. It will make your skin radiant, bright, moist and transparent-the signs of healthy skin-thanks to the effect of green tea and red ginseng. If you want your skin to be even more radiant, apply more LUMINATURE ESSENTIAL FINISHER on your forehead, in between the eyebrows, and on your cheeks. You will feel your face radiating with freshness and beauty.

This Chuseok(Korean Thanksgiving Day), stand beneath the full moon with a bright complexion and healthy radiance instead of the dull and rough skin that concerns you every autumn. We hope that your skin will emit the radiance that will make the moon hide this year.

옛살을 돌아보다

다양한 놀이로 스스로를 위로했던 조상들

조선 사람은 피곤했다. 사대부는 양반으로서 어른 노릇을 해야 했고, 민초는 오죽도 발등에 누어야 할 만큼 강도 높은 노동에 시달려야 했으니까. 그토록 팍팍한 삶을 산 그들에게 과연 여가라는 사치가 가능했을까 싶지만 실은 삶이 고된 만큼 유희가 발달했고, 그만큼 귀한 가치를 지녔다. 전통문화의 실천적 복원에 앞장서고 있는 해동경사연구소 권오춘 이사장에게 우리의 옛 놀이문화에 관해 물었다.



松抱雪
菊凌霜
庚午首春
必初居士



1 최기영 대목장의 솜씨가 돋보이는 초은당의 입구다. 하지만 대문 쪽에선 초은당의 전경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마치 조만간에 펼쳐질 풍경을 아껴 두려는 심산인 듯. 2 어느 한 구석, 주인의 애정 어린 손길에 미치지 않는 곳이 없어 보이는 마당에 서면 비로소 초은당의 위풍당당한 전경이 시야에 들어온다. 고려시대 양식을 따른 초은당은 긴 처마가 당장이라도 잡채를 들어 올려 승천할 기세다. 3 초은당의 백미는 장인의 땀방울로 완성된 대청마루다. 긴 장마의 습한 기운도 범접하지 못할 정도로 옷칠 마르는 견고하다. 물론 기승을 부리는 벌레나 곰팡이 걱정도 없다는 것이 권오춘 이사장의 전언이다. 4 배산임수의 길지에 터를 잡은 끼담에 작은 창을 향해 놓인 책상 앞에 앉으면, 절로 사색의 문이 열릴 것만 같다. 5 은은한 실내조명이 초은당의 기품을 돋보이게 한다.

서양력을 쓰는 요즘, 우리는 1주일 단위로 시간을 잘라 쓴다. 하지만 농경문화 속 음력을 쓴 선조들의 스케줄은 1년 단위로 길게, 아주 길게 짜였고 관리됐다. 그리고 그 스케줄이란 게 뼈가 삭는 노동의 다른 이름이었다. 그러니 고된 노동을 반 푼어치 만큼이라도 희석시킬 유희가 절실했다. 유과보다 더 달콤한 휴식이 된 ‘옛 놀이문화’는 대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을까?

옛 놀이를 떠올리면 당장 떠오르는 게 고작 씨름, 제기차기, 윷놀이 정도에 머문다. 하지만 이런 대표적 명절놀이 말고도 유희에 능한 우리 민족의 속성을 드러내는,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놀이는 달력에 빼곡하게 기록하고도 남을 만큼 차고 넘친다. 철 따라 절기 따라 다양한 놀이로 단조로운 일상에 변화를 주었던 것이 우리네 한민족이다.

악가무(樂歌舞)에 능한 선조들은 새해를 열 때도 풍류회로 시작했다. 요즘 신년회에도 술과 노래 춤이 빠지지 않지만, 당시엔 시를 짓고 글씨를 쓰며 그림을 곁들였다는 점에서, 풍류의 격이 달랐다. 우리의 전통 풍류에서 가벼운 것만 남고 알맹이는 쏙 빠진 셈이니, 아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아, 그 풍류의 격을 복원할 방법은 없단 말인가.

우리가 외면하고 있는 윷놀이를 두고, 고려조 목은 이색은 “줄이 이기고 교가 진다”며 노련한 늙은이가 어린아이에게 질 수 있는 윷놀이의 변수에 대해 글을 남겼다. 목은이 흥미롭게 살폈던 윷놀이가 기력은 떨어졌지만 수백 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21세기에도 남아 있음은 놀이문화의 강한 생명력을 짐작케 한다.

중장년층이라면 윷놀이와 더불어 달집태우기나 쥐불놀이도 익히 들어봤을직한 놀이로 기억할 것이다. 하지만 ‘월견상극’이란 풍속이 있었다고 하면, 고개를 가웃거리지 않을까. 월견상극이란 달과 개가 상극이라 하여, 정월대보름엔 개를 굶겼던 일종의 풍속이었다. 개가 달을 먹어 월

식이 생긴다고 믿었던 시절이어서 가능했던 녹슨 풍습이다. 당시의 견공들은 달 보고 쫓겨 오해를 사, 하루 끼니를 건너뛰었던 모양이다.

정월대보름 하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그 가치가 단순치 않은 놀이가 있다. 바로 경북 안동 하회 별신굿 탈놀이이다. 엄격한 신분제 사회에서 ‘탈’은 억압받던 민중의 한을 토해 내게 하던 탁월한 장치였다. 고향인 경북 안동에서 유년시절 성리학과 그 지역 특유의 문화를 체험한 것을 두고 “정신적 수혜의 시간이자, 범고창신 온고지신이란 깨달음의 원천이었다”고 말하는 권오춘 이사장(해동경사연구소)에게 전통놀이 문화에 대한 질문을 던졌더니, 탄식부터 흘러나왔다.

“지난 시절, 우리는 유례없는 산업화에는 성공했지만 조상 대대로 이어진 미덕과 전통을 저버리고 말았죠. 세계사를 훑어봐도 이렇게 빨리 전통문화가 증발한 사례가 없어요. 한복은 국악공연장에서나 볼 수 있고, 한옥은 사찰이나 반촌이란 한정된 공간에서 발견할 수 있는 진귀한 풍경이 되었으니, 가슴이 먹먹한 일이지.”

그가 기거하는 경기도 양평 초은당(招隱堂, 어진 이들을 초대해 노니는 집)은 인간문화재 최기영 대목장의 솜씨로 지어진 집이다. 한눈에 봐도 귀솟음 처마가 기품을 내뿜는 고려시대 양식의 초은당의 백미는 단연 대청마루다. 옷칠장인 정수화 씨의 정성스러운 손길이 다섯 번이나 스친 이 대청마루에 앉아 한학과 ‘선비 춤’을 연마하며, 전통문화의 실천적 복원에 앞장서고 있는 권 이사장은 하회탈놀이에 대해 이렇게 정리했다.

“세계인이 열광하는 브라질의 리오 축제에 버금가는, 탈로써 서슬 퍼런 금기의 벽을 허문 하회탈놀이는 하나의 카니발이자 혁명적 발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는 그런 조상들의 정신이 훼손돼, 저급한 놀이문화만 난무하는 요즘



3



4



5





2



3



4

1 강급속도로 실종되고 있는 우리 전통문화를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권오춘 이사장이 차 한 잔을 마주한 채 생각을 가다듬고 있다. 2 전통미감을 느낄 수 있는 작품을 곳곳에서 볼 수 있는 초은당은 권이사장의 딸인 권지영 대표에 의해 문화공간으로 변신하기 위한 날갯짓을 하고 있다. 3,4 옛 사람들은 집 안팎에서 놀이의 정신을 이어갔다. 소반도 병풍도 그 시절 아이들에게 놀이의 대상이 아니었을까? 물론 어른들의 자청구가 두려웠겠지만.

의 세태를 내심 안타까워하며 질타했다. 그는 조선이 5세기 넘게 왕조를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을 다음과 같이 풀이했다.

“조선의 정치는 한마디로 예와 악의 조화였어요. 예를 중시하면 너무 억압이 심하니, 악으로서 긴장감을 늦추었고, 악이 성해 자칫 풍속이 문란해질 성 싶으면, 다시 예로써 질서를 유지한 것이 조선의 정치였 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의 놀이문화인 악에는 통치철학이 깃들었다고 할 수 있죠.”

그가 기억하는 안동의 여름놀이 한 가지가 있다. 7월이 되면 마을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무성한 풀을 베었다. 호박전을 부치고, 술잔이 돌 았음은 물론이다. 이 자리에 풍악이 빠질 리 없다.

“함께 베어낸 풀을 보리농사를 위한 거름으로 만들었으니, 놀이와 노동이 결합된 형태죠. 특히 봄에 서로 물을 대겠다고 언성을 높이던 이웃과 맺힌 감정을 풀어내는 자리이기도 했죠. 이런 식의 놀이는 향촌의 공동체 문화를 성숙시키는 계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선의 놀이는 농업과 밀접한 절기와 명절을 중심으로 행해지고, 진화했다. 특히 놀이문화는 명절과 행보를 같이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이야 그 의미가 퇴색됐지만, 설날과 한식 한가위와 더불어 4대 명절이던 단오는 다양한 놀이문화를 엿볼 수 있는 공연장이나 한가지였다.

음력 5월 5일 양기가 강한 이날, 단오가 되면 이 땅의 백성들은 한민족의 대표 전통놀이인 그네를 뛰고, 모래판을 뒹굴며 씨름으로 힘과 기를 겨뤘다. 아쉽게도 설과 한가위만 남고, 한식과 단오는 현대인의 기억에서 잊히고 있는 듯, 그네타기와 씨름이 마치 남의 놀이 같아진 지 오래다.

단오를 지나 더위가 극성인 여름에 접어들면, 놀이는 물가에서 더위

를 피하는 ‘천렵’으로 그 형태가 바뀌었다. 기록에 따르면, 천렵을 비단 여름에만 즐긴 건 아닌 모양이다. 다만 아무나 즐길 수 있는 호사는 아니었고, 물고기만 잡고 놀던 놀이도 아니었다고 한다. 마을 근처 냇가에서야 민물고기를 잡아 탕을 끓이는 정도의 일반적이고 소극적인 천렵이 이뤄졌지만, 지체 높은 양반들의 천렵엔 화로와 악기에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등 다양한 먹을거리가 뒤따랐다고 한다. 하긴 요즘도 피서가, 가벼운 탁족과 호화 해외여행으로 나뉘는 걸 보면, 예나 지금이나 빈부의 격차가 놀이에도 적용되는 건 동일한 현상인가 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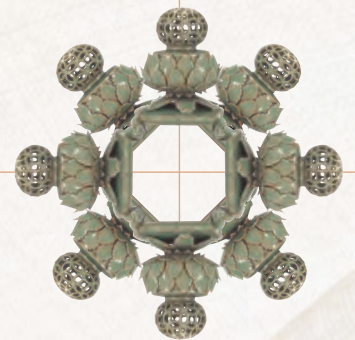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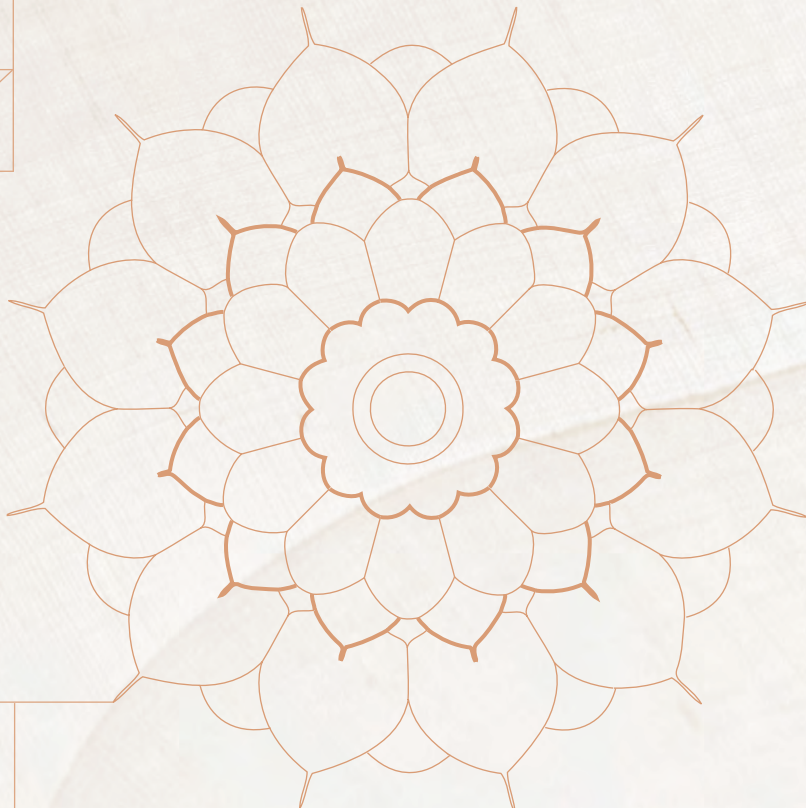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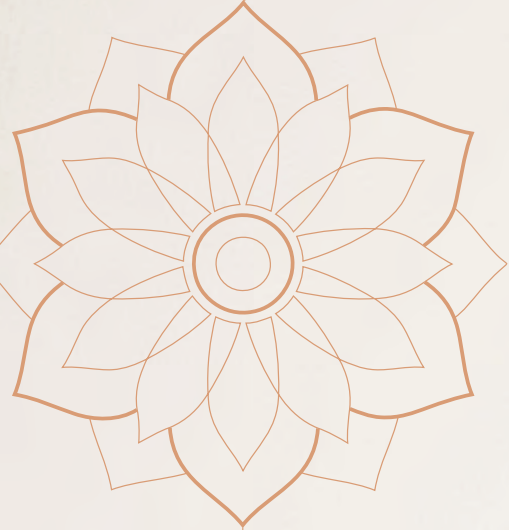
궁핍하던 시절, 그나마 먹을 게 풍성한 한가위는 최고의 명절이었고, 고된 노동이 끝나간다는 여유로움 때문인지 놀이문화 역시 여느 때와 다른 구석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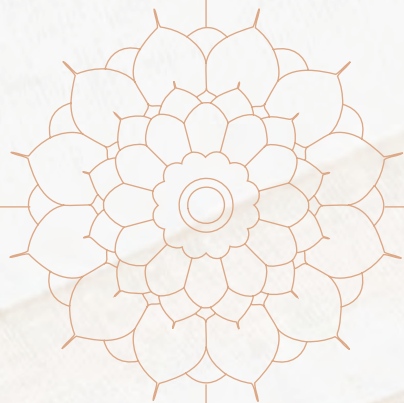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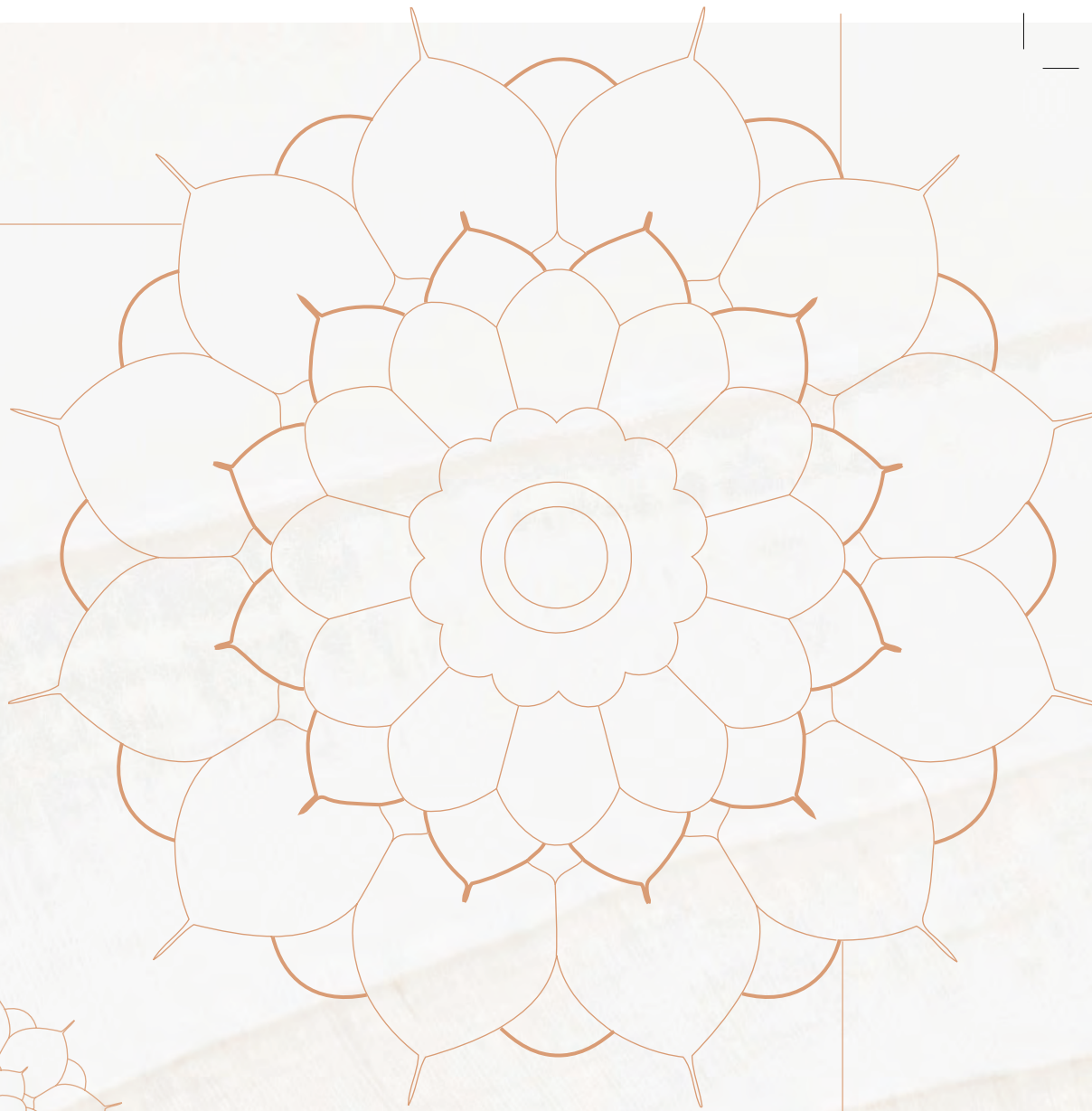
한가위 세시풍속 가운데 ‘거북놀이’란 게 있었다. 수수잎을 따서 거북 등짝처럼 엮어 등에 메고, 영금영금 기는 거북 흉내를 내는 놀이다. 거북으로 가장한 사람을 앞세우고, “동해 용왕의 아드님 거북이 행차시오!”를 외치며, 풍물패가 가가호호 문지방을 넘고 또 넘었다. 그렇게 흥을 돋운 놀이패는 부엌 앞에서 “빈 솥에다 맹물 붓고 불만 때도 밥이 가득하시고”를 외치고, 마구간 앞에선 “새끼를 낳으면 열에 열 마리가 쑥쑥 빠지네”를 외쳤다. 이런 식으로 이웃의 복을 빌어 주었으니, 놀이와 기복이 결합된 형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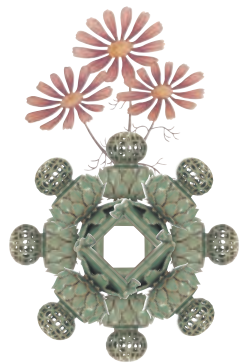
우리가 잊어버렸거나, 방치한 우리 놀이문화. 위정 세력은 예와 악의 조화로 통치하고, 백성들은 놀이의 다양한 변주로 스스로의 삶을 위무한 것이 그 시절이었다. 아름답고 지혜롭던 당시의 전통을 복원할 길은 정녕 미로로 사라진 것일까? S

글 최태원 사진 양태균

우리 선조들이 유독 솜씨와
맵시가 좋아 자태를 아름답게
꾸몄던 것은 익히 아는 이야기다.
고운 자태와 정갈한 집 안 단속을
모두 바른 정신의 발현으로
여겼으니, 깨어 있는 마음과 정신을
대변하던 향을 애중했음은 말해
무엇하겠는가. 우리 선조들의
일상적인 공간과 몸에서는 늘
은은하고 깊은 향내가 피어났다.
우리가 선조들의 애향(愛香)문화를
살펴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정신과 몸의 합일(合一)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향기롭게 피어나리니



그윽한 향기로 심신(心身)을 씻다

신화나 설화의 첫 장면은 예외 없이 향기로 시작된다. 한민족의 첫 근거지인 태백산 신단수는 박달나무, 즉 자단(紫檀)과 백단(白檀)의 그윽한 향기로 뒤덮여 있었고(《제왕운기(帝王韻紀)》), 하느님은 인간을 창조하기 사흘 전에 온갖 식물들의 향기로 가득한 에덴동산을 먼저 만드셨다(창세기 1:11-12). 유전자에 스민 태초의 기억 때문이었을까? 인류는 자연에 떠다니는 온갖 냄새들을 모으고 섞고 분리하여 다양한 향료들을 만들어 냈다. 불교와 함께 한반도에 향료가 전해진 지 1천 6백여 년. 우리 역사 속엔 어떤 향기들이 스며 있을까? 한민족의 삶에 깃든 그윽한 애향문화(愛香文化)를 음미해 보자.



1

1 충청남도 부여 능산리 절터에서 출토된 국보 제287호, 백제금동대향로. 다리 하나를 치켜들고 있는 한 마리의 용이 깃 피어나려는 연꽃봉오리를 입으로 받치고 있는 형상이 아름답다. 연기는 봉황의 가슴과 두경에 둘러 있는 12개의 구멍으로 피어오르도록 고안되어 있다. 2 왼쪽에서 바깥 쪽으로 두드려 내어 도드라지게 하는 타출(打出) 기법을 사용하여 누각과 버드나무가 표현된 고려시대의 풍경 무늬 향합. 향합의 줄 끝에는 구슬과 고리가 달려 있고, 웃고름 등에 걸 수 있도록 줄이 달려 있다. 모두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2

삼국과 고려의 향

“신라 19대 눌지왕 때) 양나라가 사신을 시켜 의복과 향을 보내왔는데 임금과 신하가 그 향의 이름과 용치를 몰라 전국을 두루 다니며 묻게 하였더니, 목호자가 말하기를 이것은 향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것을 태우면 꽃다운 향기가 무럭무럭 나는 까닭에 그 정성이 거룩한 신에게 사무치게 되는 것이다. (중략) 왕녀가 병이 위독하여 목호자를 불러 분향케 하고 발원케 하였더니 병이 곧 나았다.”(《삼국유사》 권3)

향에 관한 최초의 기록인 율령의 배경은 5세기 중엽. 단지 기록이 남아 있지 않을 뿐, 고구려는 그보다 훨씬 먼저 향을 받아들였다는 게 정설이다. 실제로 고구려 쌍용총(4세기 말) 고분벽화엔 향연(香煙)이 피어 오르는 향로를 머리에 이고 있는 소녀의 모습이 담겨 있다.

“2월에 왕흥사가 낙성되었다. 왕(백제 흥왕, 7세기)이 매양 배를 타고 절에 가서 행향(行香)하였다.”(《삼국사기》 권27)

“진평왕 9년에) 바위 옆에 절을 세우고 대승사라 하였다. 법화경을 외우는 중을 청하여 주지로 삼아 공양 돌을 깨끗이 쓸고 분향을 끊지 않았으니.”(《삼국유사》 권3)

삼국시대엔 이렇듯 사찰의 제사나 의식에 향이 주로 사용되었다. 그러다가 고려에 이르러 귀족 또는 궁중 여인들에게까지 확산되기 시작했다. 송나라 사신 서공이 1123년에 쓴 <고려도경(高麗圖經)>이라는 책엔 고려 여인들의 향주머니에 관한 대목이 나온다.

“부인의 화장은 향유(香油) 바르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 감람빛 넓은 혁대를 두르고, 채색 끈에 금방울을 달고, 비단 향낭(香囊)을 차는데, 이것이 많으면 귀히 여긴다.”

〈고려도경〉엔 ‘박산로(博山爐)’라는 향로 얘기도 나오는데, 끓는 물을 담아 놓고 옷에 향기를 쐬는 용도로 썼다고 한다. 이렇듯 고려 여인들은 향유를 몸에 바르기보다는 향낭이나 훈증을 통한 ‘은은한 향’을 즐겼던 것으로 보인다. 고려가요 〈만전춘〉에 ‘금수산 이불 안에 사랑각시를 안아 뉘어’라는 대목이 있는 걸 보면, 향은 남녀 간 사랑의 매개 역할 또한 독특히 했던 것 같다.

향기를 사랑한 조선인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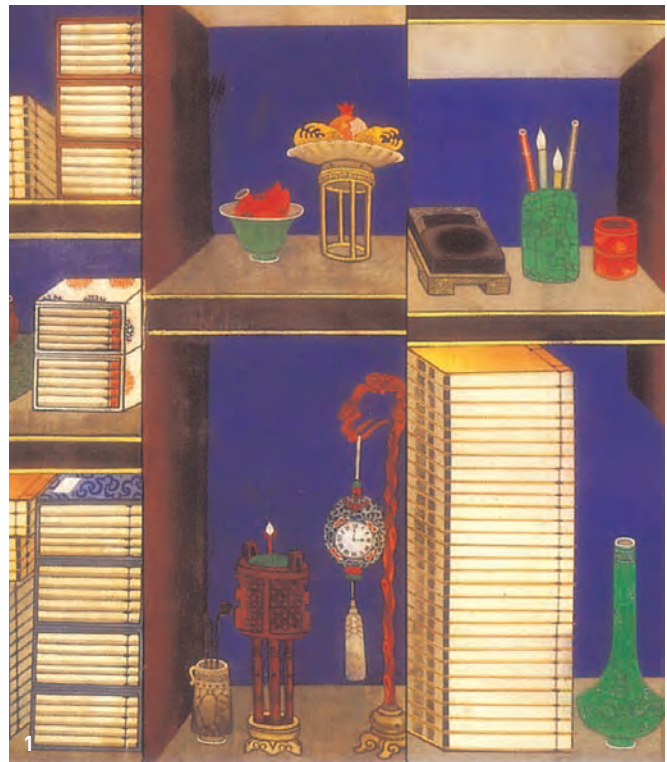
조선시대가 되면서 향은 궁궐 밖에서도 광범위하게 퍼지기 시작한다. 침실에 향을 사르고, 향 물에 몸을 씻고, 혼례나 손님맞이 때에도 향을 애용했다. 귀부인들뿐 아니라 기녀들까지도 향낭을 차고 다녔으며, 궁내 상궁들은 여러 개의 향 환(丸)을 켜 ‘줄향’을 패용하기도 했다. 향을 바르고 피우는 차원을 넘어 의약품으로까지 발전했다는 방증이다.

궁중에선 향실(香室)의 ‘향실별감’에게 관련 업무들을 전담케 했고, 향장(香匠)이라 불리는 전문 조향사들로 하여금 향을 생산케 했다. 이와 달리 민간에선 부인들이 직접 향을 만들었는데, 19세기 초에 발간된 〈규합총서(閨閣叢書)〉엔 향 제조법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이를테면 이런 식이다.

“모향(募香)과 이삭 잎을 달여 영릉 향을 한데 섞어 먹고 먹을 감으면 … 땀이 나도 사나운 냄새가 없어 향기롭다.”

조선 여인들이 삶에 향을 접목시켜 아름다움을 추구했다면, 선비들에게 향은 지필묵과 더불어 늘 곁에 두는 벗, 이를테면 문방오우(文房五友)다. 책을 읽을 때면 그들은 우선 옷차림을 단정히 한 뒤 향로에 불을 지피 심신을 안정시켰다고 한다. 19세기 실학자 이규경의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엔 이런 문구가 나온다.

“오시(午時)엔 선향(線香) 한 개비를 피우고 일정한 곳을 맴돌아 기(氣)와 신(神)을 안정시키고 … 유시(酉時)엔 선향 한 개비를 피우고 동(動)과 정(靜)을 마음에 맞도록 하며 … 해자시(亥子時-해시부터 자시)엔 일신의 원기가 모르는 사이에 발생하므로 … 선향 한 개비쯤 피우고 명문(命門)을 단단히 보호하면 정신이 날로 유여해지고 원기가 충만해질 것이니 …”



1 조선시대 책가도. 선비들은 책을 읽을 때 향로에 불을 지펴 늘 정신을 맑게 깨웠다. 2 조선시대의 백자 산 모양 향꽃이. 산 정상 부분에 작은 구멍을 내어 향을 꽃을 수 있게 했고, 그 아래의 산 입구 부분은 집 모양 주위로 한 마리의 반룡(蟠龍) 하늘에 오르지 못하고 땅에 서리고 있는 용이 산을 감싸고 있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이렇듯 번뇌를 제거하고 성(聖)을 배우며 선(善)을 바라는 수단으로 향을 사용한 것이야말로 다른 나라와 뚜렷이 구분되는 조선시대 애향문화의 특징이다. 굴이 회수를 건너면 탕자가 된다지만, 천축에서 중원을 건너 이 땅에 전해진 향은 오히려 본토를 능가하는 수양의 도구로, 멋들어진 생활문화로 거듭난 것이다. “모든 제규제촉(諸竊諸觸: 몸의 감각들) 가운데 가장 빠르고 거짓됨이 없는 것은 오직 코로 냄새 맡는 것”

이러던 조선 후기 실학자 최한기의 견해는 그런 문화적 토양 속에서 싹튼 향기로운 혜안이 아니었을까. S

에디터 김희성 글 박경수

격조높은삶/어우러지다

향기로 그윽하다

앞췌에 향갑을 달아 움직일 때마다 은은한 향내를 풍기고,
서재에 선향을 태워 책을 읽기에 앞서 정신부터 깨우던 선조의 애향(愛香)은
단지 냄새를 좋게 하고자 함이 아니라 그윽한 정취를 품고자 함이었다.





향기를 입히다

선비들은 서재에 향을 피워 잡냄새를 없앴고, 옛 아낙들은 옷에 향기를 혼증하여 그 향이 깊숙이 스며들도록 하였다. 혼증은 향을 입히는 효과 외에도 옷감이 나 공간을 살균 소독하는 역할도 하였으니 그 지혜를 본받음이 마땅치 않은가.

왼쪽 백자 향꽃이는 광주요, 옥 향꽃이는 서울시 무형문화재 엄익평 옥장의 작품으로 가원공방.

오른쪽 카키색 원양견 치미와 수박색 소매가 어우러진 소색 명주저고리는 담연, 백자 향로는 정소영의 식기장, 횃대는 담연의 소장품이다.



여인의 가장 큰 호사는 향기로다

패션의 완성은 향기라고들 한다. 예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다. 곱게 차린 여인이 고운 옷감에 어울리는 향갑을 매달아 채비를 마치는 것과 밖을 나서기 전에 경대 앞에 앉아 향가루를 살며시 짚어 바르는 그 자체가 호사 중의 호사가 아니었겠는가.

왼쪽 남보라 석류사 저고리와 소색 박명주 치마, 향수병 노리개는 모두 담연. 오른쪽 옥합은 서울시무형문화재 엄익평 옥장의 작품으로 기원공방, 경대는 담연.







부부침실을 향기로 채우다

어머니가 딸의 혼수품에 모란도를 챙겨 줬을 딸이 시집을 가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집안을 번성시키는 밑거름이 돼라는 의미도 있지만, 부부의 침실에 다복의 향이 활짝 피어나기를 기원함도 있다. 옷장과 이불장에도 향주머니를 두어 늘 향기롭게 하고, 사향을 피워 부부지정을 돈독히 하려던 옛 여인의 사랑이 향기롭다.

왼쪽 천연염색 명주 이불은 규방도감. 문갑에 걸린 진주낭은 서울시 무형문화재 김은영 매듭장의 작품. **오른쪽** 모란도 병풍은 강은명 작가의 작품으로 오색채담. 천연염색 명주 이불과 소색 베개는 모두 규방도감.



자연 만물을 향으로 만들다

현대의 관점에서 보자면 선조들의 향 제조법은 까다롭고 수차례 손이 가는 무한 노동 중 하나였다. 향 제조의 시발점이 바로 각종 향기로운 자연물을 채취하고 말리는 것이다. 그러나 별 좋은 마당에서 향이 만들어지고 있는 모습을 두고 누가 노동이라 생각하겠는가. 또한 제철의 꽃과 열매로 향 물을 내어 목욕을 하고 머리를 감던 모습은 노동이라기보다 풍류에 가깝지 않은가.

왼쪽 옹기와 박바가지는 담연 소장품. 오른쪽 닛대이는 이종남천연염색연구소 소장품이며, 저수 손수건은 규방도감 제품이다.

에디터 김희성 사진 이종근 스타일리스트 최서윤(다락) 어시스턴트 손예희, 김이영 촬영 장소
락고재(02-742-3410) 도움 주신 곳 가람공방(02-2278-0250), 광주요(02-3442-2054), 규방도
감(02-732-6609), 담연(02-645-6464), 오색채담(02-566-5375), 이종남천연염색연구소(02-
762-5310), 정소영의 식기장(02-541-6480)



옛사람들의 향기 제조법

삼국시대나 고려 때와 달리 향 문화가 민간으로 널리 퍼진 조선시대에도 향은 기품 있는 물건이다. 어지간한 인내와 정성으로 질 좋은 향을 만들 수 없었고, 한 번 만들거나 손에 넣은 향료는 한 방울(또는 한 조각)이라도 허투루 날릴세라 애지중지하곤 했다. 19세기의 <규합총서(閏閣叢書)> 등 여러 문헌에 실려 전해지는 옛사람들의 향 제조법을 더듬어 보자.

구자향(毬子香)은 우선 재료부터가 범상치 않다. 애눌(100년 묵은 소나무 등걸에 피는 푸른 이끼) 한 근, 정향(丁香) 반 냙, 멧대추 찢 기름 한 종지, 단향 반 냙, 향부자(香附子, 사초과의 풀) 반 냙, 백지(白芝, 구릿대 뿌리) 반 냙, 모향(茅香, 흰띠 꽃) 반 냙, 초두(草頭) 한 매, 구겨피 한 매, 용뇌향 약간. 대추를 고아 졸인 물에 이 재료들을 알맞게 섞어 절구에 넣고 찧는다. 그리고 오동씨 크기로 환(丸)을 만들어 한 알씩 피운다. 특출한 재료만큼이나 향기 또한 탁월했던 구자향은 오늘날의 명품 향수를 능가하는 최고급 향료로 이름이 높았다.

매화향을 만들 땐 감송(甘松, 풀 이름)과 영릉향(寧陵香, 콩과의 풀) 각 한 냙, 단향과 회향 각 반 냙에 정향 100대, 용뇌향 약간을 가루로 만들어 꿀에 개어 섞는다. 판(版)에 박아 적당히 말린 후 곁에 주사(朱沙; 광물 이름)를 입히고 자개와 금채를 바른다. 향료라기보다는 보석 장신구 같은 독특한 외관의 고급 향료다.

향병자(香餅子)를 제조하려면 우선 좋은 숯 한 근, 접시꽃이나 잇꽃 한 근 반을 함께 찧어 곱게 만든 뒤 묽은 풀을 조금 섞어 떡처럼 만든다. 그 다음 탄자(彈子, 총알) 크기로 환을 만들어 별에 바짝 말린다. 이를 병 속에 넣어 두고 향 피울 때마다 향료에 묻어 두면 짙은 향기가 오래도록 가시지 않는다고 한다.

몸에 지니거나 향료에 넣고 피우는 게 아니라 한지에 싸서 옷장 속에 넣어 두는 향도 있었다. 영릉향 한 근, 감송과 단향 각 열 냙, 정향피와 신이(辛夷, 백목련) 각 반 냙, 회향 한 푼을 찧어 곱게 가루를 내고 용뇌향과 사향을 약간 넣으면 오늘날의 방향제 역할을 하는 향료가 만들어진다.

하나의 향을 만들어 내려면 이렇듯 까다로운 재료와 제조법을 일일이 지켜야 했다. 그러니 어찌 한 방울인들 쉽게 흘릴 수 있으며, 한 조각인들 쉬이 버릴 수 있겠는가. 향수가 흔해진 오늘날보다 옛사람들의 향기 사랑이 더욱 각별했던 건, 코끝으로 스미는 향 속에 향장(香匠)의 숨결이 섞여 있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혹은, 한 방울의 향유 속에 수백 배의 땀이 응축되어 있었던 까닭인지도 모른다. S

에디터 김희성 글 박경수



韓

雪花秀

피부 깊이 힘이 살아나야 맑고 환한 빛이 차오릅니다 설화수 자정미백에센스

맑고 환한 피부빛은 피부 힘이 결정하기에-
자정미백에센스는 피부 깊이 힘을 키워 자외선, 적외선, 노화가
만든 열에 의한 칙칙함을 스스로 밝히는 피부로 가꿀 수 있습니다.
이제 쉽게 지치지 않는 맑고 환한 피부빛과 만나세요.
근본에서 찾은 더 좋은 대답, 자정미백에센스

Sulwhasoo



韓方

雪花秀

다시 깨어나는 피부 본연의 힘 설화수 자음생크림

자음생을 경험한 분들이 계속 자음생을 찾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인삼뿌리부터 진생베리까지 인삼에 담겨 있는 모든 생명력을 손실 없이
피부 속에 전달하여, 피부 스스로 살아나는 힘을 되찾아주기 때문입니다.
매일 아침 새로 태어나는 기분을 느끼게 하는 설화수 자음생크림으로
당신 안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깨우십시오.

Sulwhasoo



정조, 사부곡을 담아 신세계를 짓다

조선 후기 비운의 인물로 꼽히는 사도세자. 그리고 그의 아들, 정조. 아버지의 운명과 달리 정조는 재위 25년을 조선의 문예부흥기로 꽃피운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이룬 치세의 흔적과 아버지에 대한 애뜻함을 수원 화성과 용건릉에 남겼다. 아버지의 묘 옆에 영원히 잠든 그가 후대에 남긴 메시지는 무엇일까.

에디터 김희성 사진 이한구(다큐멘터리 사진가)



건릉은 무언을 품었다

정조가 잠든 건릉의 안온함은 그 옆에 자리한 사도세자의 묘 율릉으로부터 온다. 조선 후기 최고의 치적을 이룬 왕으로 꼽히는 정조, 그의 아버지는 당파 싸움의 희생양이 되어 뒤주에 갇혀 죽임을 당했다. 후대의 칭송에도 불구하고 아비에 대한 연민과 사랑으로 늘 애달팠던 평범한 아들이 여기에 잠들었다. 정조의 마음이 담긴 탓일까. 능상을 보호하기 위해 둘러쌓은 건릉의 곡장이 아버지의 품을 닮았다.

The comfort of Geonneung, where the remains of King Jungjo rest, comes from Yungneung of his father, Crown Prince Sado, which is next to it. The father of King Jungjo, known as the most successful king in the late Joseon Dynasty, was sacrificed in a factional strife and locked in a chest until death. Here rests an ordinary son who loved his father so much. It must be King Jungjo's devotion that makes the protective fence around Geonneung resemble the arms of a fath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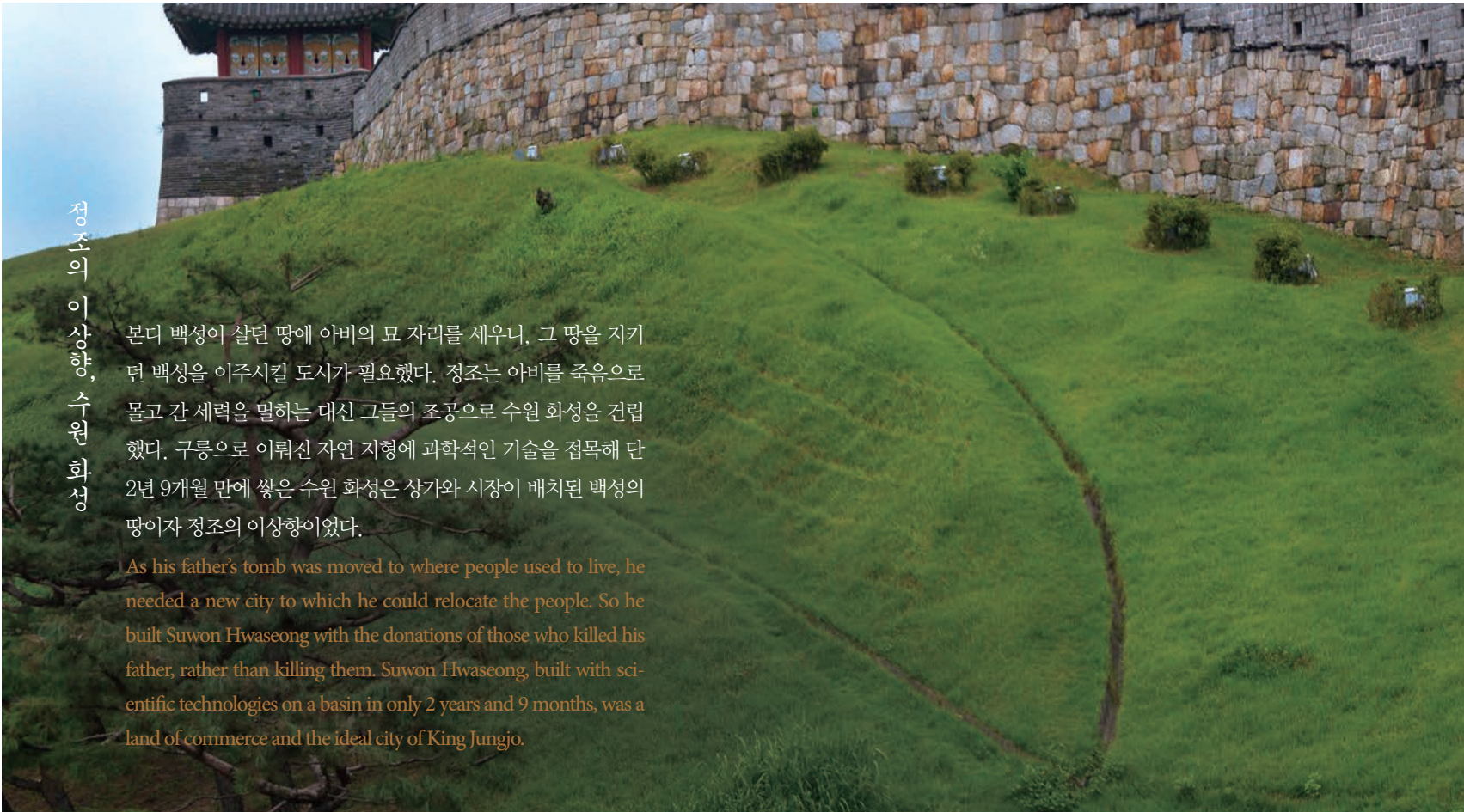
화산(花山)에 효심의 꽃을 피우다



1776년, 정조는 대신들에게 “과인은 사도세자의 아들이다”라고 선포했다. 배봉산에 있던 부친의 영구를 수원 화산(花山)으로 모시고 와 “이 산의 이름이 화산이니 꽃나무를 많이 심는 것이 좋겠다” 하며 용릉 주위에 사철 꽃이 이고 지도록 살피고, 죽음 뒤에서라도 아버지가 꽃피길 열망하듯 능상을 두른 병풍석에 연꽃 조각을 피워 올렸다. 저 자애로운 인상의 문석인이 지키고 있는 것은 정조의 효심이 아닐는지.

In 1776, King Jungjo declared to his officials, “I am the son of Crown Prince Sado.” He moved the tomb of his father from Mt. Baebong to Mt. Hwa in Suwon and said, “As this is Mt. Hwa, let’s plant many flower trees.” He made sure that Yungneung is surrounded by flowers all year and engraved fully bloomed lotus flowers on the screen stone so that his father would bloom after his death. It must be King Jungjo’s love that the benevolent guardian stone is guard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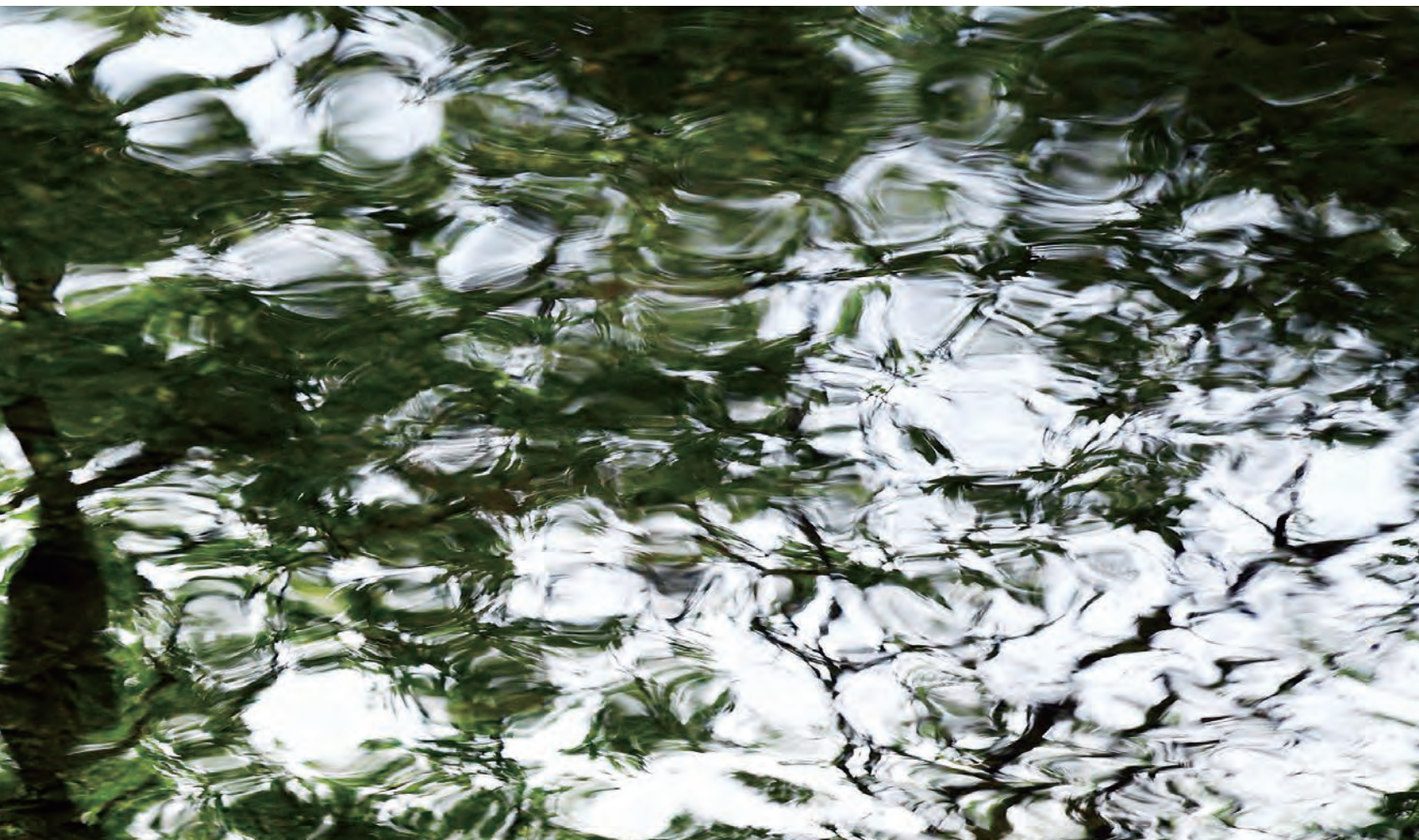
정조의 이상향, 수원 화성

본디 백성이 살던 땅에 아버지의 묘 자리를 세우니, 그 땅을 지키던 백성을 이주시킬 도시가 필요했다. 정조는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 간 세력을 멸하는 대신 그들의 조공으로 수원 화성을 건립했다. 구릉으로 이뤄진 자연 지형에 과학적인 기술을 접목해 단 2년 9개월 만에 쌓은 수원 화성은 상가와 시장이 배치된 백성의 땅이자 정조의 이상향이였다.

As his father's tomb was moved to where people used to live, he needed a new city to which he could relocate the people. So he built Suwon Hwaseong with the donations of those who killed his father, rather than killing them. Suwon Hwaseong, built with scientific technologies on a basin in only 2 years and 9 months, was a land of commerce and the ideal city of King Jungjo.







곤신지에 하늘의 마음이 비치다

조선의 문인이었던 윤선도는 용릉의 형상을 '반룡농주형(盤龍弄珠形)'이라 전했다. 용이 누워 여의주를 가지고 노는 형상이라는 뜻인데, 정조는 용릉에서 내려다보이는 용의 머리 부근에 여의주 모양을 본 뜬 둥근 연못, 곤신지(坤申池)를 만들어 지세마저도 완벽히 보완했다. 곤신지에 비치는 하늘 그림자가 천심(天心)인 양 보이는 것도 하늘에 닿을 듯 지극했던 정조의 효심 때문일 것이다.

Sun Do Yoon, a scholar from the Joseon Dynasty, described Yungneung as a dragon lying down and playing with a cintamani. King Jungjo perfected the topography by creating a round pond called Gonshinji around the head of the dragon beneath Yungneung. It must have been King Jungjo's devoted love that makes the reflection of the sky on Gonshinji look heavenly.

설화수와 인연을 맺다

팝페라 테너 임형주
성찰을 담은, 내밀한 열정

미성의 목소리로 노무현 전 대통령 취임식에서 애국가를 열창하는 천부적 재능의 17세 소년은 단연 음악계의 이슈였다. 대중은 감탄했고 탄복했다. 사실 임형주 본인조차도 상상할 수 없었다. 이 무대가 자신의 인생을 얼마나 화려하게 꽃피울지.







소년은 꽤 다부지게 음악적 행로를 걸어 왔다. 햇수로 따지자면 〈Whispers Of Hope〉를 발표하며 국내 무대에 데뷔한 지 15년, 인터내셔널 앨범인 〈Salley Garden〉을 내놓은 지가 벌써 10년이다. 그동안 출시한 앨범만 손에 꼽아도 13장이다.

선천적 재능을 대중에게 증명이라도 하듯, 화려한 수상 경력과 국제적인 공연소식도 끊이지 않았다. 신기하게도 최연소 기록이 유독 많았다. 가령 대통령 취임식 선창자 중에서 가장 나이가 어렸으며 뉴욕 카네기홀 독창회는 남성성악가 중 최연소 기록을 세웠다. 어디 그뿐인가. 대관이 까다롭다는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에서 조수미, 조용필, 조영남에 이어 네 번째로 무대에 섰다. 옛된 미소년은 이제 어엿한 국가대표급 음악인이 되었다. 사람들은 곧잘 묻는다. 임형주의 음악적 재능은 과연 어떻게 발휘되었을까. 대중이 쉽게 떠올리는 성장 시나리오는 드라마에서나 보는 상투적인 장면이다. 곱상한 외모와 반듯한 옷매무새를 단서 삼아, 음악가들이 대개 그러하듯 부잣집에서 비싼 개인 수업을 받으며 음악을 시작했을 거라는 추측이다.

참으로 억울한 편견이다. 고백하자면 어린 시절 운전사와 가정부가 있던 부잣집에서 자란 것은 맞다. 시나리오가 완벽하게 어긋나는 지점은 음악을 시작하게 된 배경이다. 곱상한 취미생활? 그건 꿈에서나 가능했다. 100% 재능과 오기로 시작한 음악인생이었다.

“제가 국민학교에 입학해서 초등학교로 졸업한 세대였어요. 3학년 무렵, 학교에서 처음으로 방과 후 특별활동을 만들었습니다. 동요부르기 반을 선택했는데 교실에 가 보니까 100명 남짓한 아이들이 용기종기 모여 있던 군요. 그렇게 5천 원짜리 첫 노래수업이 시작된 거죠.” (웃음)

피아노를 치던 선생님은 여러 아이들 중에서 유독 청아한 임형주의 목소리를 단번에 알아차렸다. 넌 성악을 하면 좋겠다, 네가 원한다면 훌륭한 성악과 교수님을 소개시켜 주겠다면서 음악인의 길을 권했다. 하지만 길이 순탄치는 않았다. 의외의 벽은 어머니였다. 들뜬 마음에 집에 와서 선생님의 말을 자랑 삼아 읊었지만 ‘음악공부는 특별활동으로 충분하다’는 대답이 돌아 왔다.

돌아보면 남자아이의 승부 근성을 능숙하게 요리한 어머니였다. 마리아 칼라스의 베스트 앨범을 듣고 성악가가 되겠다, 다시 다짐하던 때에도 어머니는 꽤나 까다로운 조건부 거래를 제시했다. (입시까지 두 달 남짓 남은 시기에) 네가 예원중학교에 입학하면 성악을 제대로 배우게 해 주겠다고 얘기하셨다. 남들은 오랫동안 개인 수업을 받으며 들어가는 학교를 최단기간에 속성으로 입학하라는, 불가능한 조건이었다. 겨우 두 달의 시간과 네 번의 개인 수업이 전부였지만, 임형주는 보란 듯 합격했다.

예술을 정확히 재단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는 실기고사를 보면 일등부터 꼴등까지, 잔인하게도 등수를 옛 과거시험의 그것처럼 버젓이 발표하였다. 경쟁은 매일 챙겨 먹는 끼니처럼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아이들은 개인수업이나 학원, 과외를 받느라 언제나 정신이 없었다.

그러나 임형주는 대열에서 멀찌감치 벗어나 있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개인 수업 받는 일을 빼면 별달리 할 일이 없었다. 그래서 찾아 간 곳이 도서관. 사전을 끼고 앉아서 성악 관련 책을 보거나 논문을 분석하면서 시간을 보냈다. 곱상한 외모와는 달리, 그는 원하는 일이면 불도저처럼 밀어붙이는 강단과 열정이 있다.

“간혹 어머니들이 물어세요. 어떻게 하면 아이를 세계적인 음악인으로 키울 수 있냐고요. (웃음) 전 이렇게 말하죠. 어머니가 동기부여를 하는 것도 좋지만 아이에겐 롤모델이 있는게 더 효과적이라고요. 저의 경우 음악적 롤모델은 마리아 칼라스와 루치아노 파바로티, 조수미 선배예요. 힘들 때면 그들의 자서전을 읽으면서 제 목표를 잊지 않았답니다. 가령 마리아 칼라스의 〈내밀한 열정의 고백〉 같은 책이죠.”

돌아보면 그가 소년 시기에 꽃피어 지금까지 화려한 이유는 사회 현실과 자신에 대한 깊은 성찰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노래밖에 모를 것 같은 첫인상과 달리 그는 두 발을 사회 현실에 디디고 있는 음악인이다. 단적으로 그는 지금도 9년째 15가지 신문을 통독한다. 감각적이고 신속한 SNS의 홍수 속에서 그는 전문가의 손에 다듬어진 정보를 읽으면서 사고의 균형을 잡는다. 순수한 예술에 몸을 담고 있지만 자신이 속한 공동체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귀를 열어 둔다. 무대에 서면 극적인 낭만주의자가 되지만 현실에서는 신문의 정치면부터 살피는, 다소 양면적인 삶을 즐긴다.

삶에 대한 통찰은 그가 이제까지 국제적인 무대나 촬영을 하면서 만난 수많은 사람들, 가령 정재계 인사부터 가락시장 상인까지 다양한 계층을 접하면서 얻은 지혜도 덧붙여졌다. 깨달은 사실은 '사는 건 다 똑같다'. "권력을 가진 사람도, 부자인 사람도, 반대로 못 가진 사람도 약간의 차이만 있을 뿐 사는 건 다 똑같아요. 다들 세끼 밥을 먹어야 하고 어느 정도 스트레스 받으면서 살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삶에 집착하면서 너무 아옹다옹 살아갈 필요가 없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도 남들에게 멋있게 보여야겠다, 이미지 관리해야겠다는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편하고 자연스러운 거, 그게 진짜 삶이니까요."

사회와 자신에 대한 통찰이 바탕이 되어서일까. 다소 진부하며 추상적인 '꿈'이란 단어가 임형주에게는 매우 구체적이며 의욕적인 단어다. 이미 2008년에 아트원문화재단을 세운 것이 명확한 증거다. 남들은 40~50대에 이루는 많은 것들을 그는 이미 이루었거나 혹은 이루고 있다. 다시 말하지만 그는 아직 20대 후반의 청년이다. "그간 벌어들인 돈에서 100억을 뚝 떼어 내어 음악인을 양성하는, 비영리재단을 만들자는 어머니의 제안을 선뜻 받아들였죠. 어린 나이에 세계적인 무대에서 활동하면서 체계적인 음악교육의 중요성을 실감하기도 했고, 제가 익힌 경험을 바탕으로 각 분야의 글로벌 영재를 발굴하고 싶었거든요. 지금은 '멘토 앤 멘티 프로그램'을 통해 재능은 있지만 집안 형편이 좋지 못한 아이들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그게 제가 생각하는 문화 기부거든요."

앞으로 35세가 되면 음악적 활동은 줄이면서 '외적 활동'을 키워 갈 생각이다. 그 외적 활동이란 사회에 대한 문화적 봉사다. 사회환원사업은 자신의 재능에 대한 성찰에서 비롯되었다. 그는 말한다. 세계적인 음악가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재능, 지원, 마지막이 운이다. 이 중에서 한 가지만 빠져도 세계적인 음악가가 되기 힘들다. 특히 운, 이 한 단어는 아무리 노력해도 손 안의 모래알처럼 빠져나간다.

"다행히 저는 이 세 가지가 맞아떨어진 경우였어요.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목소리와 지원, 운이 주어졌으니까요. 언젠가부터 이러한 운이 과연 어디에서 온 것일까, 생각해봤죠. 확실한 건 저만의 노력으로 얻은 결과물은 아니라는 거였어요. 누군가가 제게 주신 재능이라면 그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편이 옳다고 생각했죠. 그게 재능을 제대로 누리는 묘미 아닐까요?"

누군가에게 감사히 받은 재능을 열심히 사용하되 남들을 위해 과감히 떼어 줄 수도 있는 마음, 그것이 자신과 세상에 대한 임형주식 치유다. 오는 10월 6일에 펼쳐질 세계 데뷔 10주년 기념 독창회도 그가 관객에게 전하고 싶은 치유의 시간이다. 이제까지 자신이 내놓은 대표곡을 모아서 사람들의 상처를 보듬을 생각이다.

일찍 핀 꽃이 빨리 진다. 한때 그는 주변의 시샘 어린 시선이 섭섭하기도 했다. 스스로도 가끔은 불안했다. 하지만 지난 발자취가 증명하듯 빨리 핀 꽃이 더 탐스러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그는 또렷이 보여준다. 어쩌면 15년의 시간은 그가 대중에게 보여 준, 내밀한 열정의 고백이다. S

에디터 박지현(프리랜서) 사진 왕태균 헤어 서언미&최명원(보보리스 02-549-0988) 메이크업 손희정(보보리스 02-549-0988)



이탈리아 전통의 가치를 담은 디자인 비토시(Bitossi)

이탈리아 토스카나 주 몬텔루포 피오렌티노(Montelupo Fiorentino)에서 탄생한 세라믹 브랜드 비토시(Bitossi)는 1950년대부터 가장 뛰어난 디자이너들의 도움으로 선조의 노하우를 발전시켜왔다. 지속적으로 혁신을 거듭해온 비토시 유산의 역사를 돌아본다.



“세상은 변했다, 변해야 한다.”

1946년 알도 론디(Aldo Londi)가 선언한 이 캐치프레이즈는, 고유의 문화유산이 가진 고전적인 취향을 현대에 새롭게 재창조해 보자는 의미다. 이러한 정신은 세라믹 브랜드 비토시(Bitossi)로 전파되기 시작했다. 비토시의 아트 디렉터로 일하던 도기 제작자 알도 론디는 이때부터 고유의 정신을 담아 본격적으로 새로운 스타일을 제시해 왔다.

과거로의 복귀, 르네상스 모티브와 메탈 광택의 뛰어난 도기인 이탈리아 마줄리카 도기 역사에 있어 비토시라는 이름은 17세기에 처음으로 등장했다. 그 후 수세기를 이어 온 비토시는 1921년, 기업가적 기질을 타고난 귀도 비토시(Guido Bitossi)를 통해 부흥을 맞게 된다. 그는 새로운 공장을 세우고 장인의 전통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기업의 설비 투자를 계속했다. 크게 혁신적인 것은 없었다. 그리고 30여 년이 지난 뒤 알도 론디가 비토시 하우스에 합류한다.

이후 비토시 하우스에서 그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기발한 최상품의 도기들을 개발하면서 비토시에 부흥을 이끌었다. 주의 깊은 성격에 열린 마음으로 모든 것에 호기심을 품었던 그는 끊임없이 관찰하고 시대를 앞서가는 디자인을 제시했다. 이러한 그의 태도는 그가 제작하는 도기 제품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

기존의 형태에서 벗어난 새로운 미학의 출현이 예고됐고, 비로소 시작하게 된 것이다. 그의 새로운 디자인은 줄무늬가 있거나 흙이 새겨지거나 문신이 새겨진 다채로운 색채의 꽃병과 잔, 접시 등으로 복고풍 라인의 독특한 도기들이 세간의 관심을 끌었다.

1950년대부터 70년대에 제작된 이 참신한 7천 점의 도기 제품들 중 박물관에 소장된 36개 제품은

1 알도 론디가 디자인한 새들. 2 밀라노의 한 갤러리를 위해 1960년대에 한정판으로 제작된 이 도기들은 1986년 이후 더 활발히 제작되고 있다. 3 세계적인 디자이너 카림 라시드가 디자인한 토템들. 독특한 아이콘과 컬러풀한 색채의 조화가 멋스럽다. 4 카림 라시드 디자인의 심벌릭 컬렉션. 유려한 곡선의 꽃잎 모양에 화려한 색채를 담아내고 있다.



1 지네브라 보치니가 디자인한 등근 꽃병. 2 에토르 소트사스 디자인의 블랙 앤 화이트 꽃병. 네모와 스트라이프 패턴의 변주가 독특한 개성을 드러낸다. 3 도자기 표면에 마치 금이 간 것처럼 효과를 준 꽃병들. 블랙 스트라이프 패턴에 새로운 감각으로 재해석한 그리스 장식이 특징이며, 알도 론디가 1963년에 제작했다. 손으로 돌려 만들어졌으며 199점이 제작되었다. 4 전 세계적으로 비토시 하우스의 명성을 알린 알도 론디 디자인의 '리미니 블루 컬렉션' 도기들은 손으로 돌려 형태를 만들고 롤렛 도구로 모티브를 찍어 제작된다.

지금도 당시의 제작 기법대로 제작되고 있다. 그중 몸통이 긴 'Don,1' 꽃병은 금이 가게 구운 흰색 받침 부분, 줄무늬처럼 흠이 새겨진 터키옥색과 검정색의 목 부분이 특징으로 장인의 완벽한 기술로 탄생한 도기이며, '2326 꽃병'은 관능적이면서도 생기가 가득 찬 오렌지색으로 70년대 팝아트의 형식을 재현해 낸 도기다. 또 '602 꽃병'은 기하학적 모티브가 들어가고 고풍스러운 느낌의 회색으로 99점이 만들어져 특히 많은 사람들로 부터 사랑을 받은 작품이다.

비토시라는 이름이 세계적으로 유명해지면서 블루밍데일스(Bloomingdale's), 헤로즈(Harrods), 타카시마야(Takashimaya) 등 초일류 부티크들에서 더욱 많이 팔리며 명성을 얻게 된 것은 바로 흠이 새겨진 모티브와 색채가 뛰어난 지중해풍 이국 취향의 리미니 블루(Rimini Blu) 라인 덕분이었다. 이 라인을 미국에 처음으로 보급한 사람은 레이모(Raymor) 사의 크리에이티브인 어빙 리처드(Irving Richards)다. 그와의 교감을 통해 알도 론디는 뉴욕의 회화와 디자인에서 영감을 얻기도 했다. 그 후, 에토르 소트사스(Ettore Sottsass)가 디자인한 자유로운 형태의 도기 제품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한다.

1960년대부터는 로큰롤이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음악계와 건축가, 디자이너, 작가들에게도 일대 유평머시한 디자인의 혁신을 불러일으켰다. 인도여행에 이어 투병시기를 거치며 다시 한 번 도약을 꿈꾸던 알도 론디 역시 삶과의 화해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암흑의 세라믹(Céramiques des ténèbres)' 라인을 디자인한다. 토템과 기둥으로 이루어진 이 라인은 박물관과 개인 소장품 리스트에 들어갈 정도로 인기를 끌었고, 지금은 한 세기의 아이콘이라는 가치를 띤다.



알도 론디는 디자이너, 아티스트들과 함께 열린 정신과 뛰어난 감각, 새로운 시각으로 잘 어우러진 정교한 도기를 만들어 왔고, 지금까지도 전혀 새로운 아름다운 도기들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즉, 나탈리 뒤 파스키에(Nathalie du Pasquier), 조지 소우덴(George Sowden), 마테오 툴(Matteo Thun) 등 1980년대 뎀피스 그룹의 상징적인 도기들과 마르코 자니니(Marco Zanini), 미모 파라디노(Mimmo Paladino)가 디자인한 도기들도 있다.

21세기에 들어선 비토시 브랜드는 지난 수십 년의 활기와 넘치는 에너지를 다시금 활발하게 되살리고 있다. 유희적인 형태와 활기 찬 색채 미술을 부리는 카림 라시드(Karim Rashid)의 심벌릭(Symbolik) 컬렉션이 그 한 예다. 카림 라시드가 '나의 상상력과 꿈의 지도를 작성하기 위한 이중 시스템 내의 소통적인 형태들'이라 묘사하며 시적으로 표현한 잔과 꽃병, 토템 제품들이다. 또 아릭 레비(Arik Levy)는 용도를 파기하는 새로운 디자인을 제시한다. 그는 비토시 브랜드를 위해 모가 난 통 모양의 기하학적 형태로 세라믹의 질리티를 표현해 냈다. 에르완(Erwan)과 로난 부룰렉(Ronan Bouroullec) 커플이 시도한 혁신적인 프로젝트의 비밀은 2008년에 드러난 대로이고, 지네브라 보치니(Ginevra Bocini)가 세인트 마틴 스쿨(St. Martin School)에서 학위 주제로 삼은 프로젝트도 도기 제품으로 탄생했다. 비토시 가문의 신시아 비토시(Cinzia Bitossi)가 리미니 블루 라인을 눈속임 기법으로 재연한 꽃병도 성공적이었다. 이렇듯 앞으로 비토시 하우스를 이끌어갈 차세대 디자이너들은 이미 성공적인 행진을 시작했다. S

에디터 신정희 글 조느비에브 도르타냐(Geneviève Dortignac) 사진 프레데릭 바세르(Frédéric Vasseur)

APMAP(amorepacific museum of art project)
공간을 탈바꿈시키는 신비한
마술 같은 체험

아모레퍼시픽미술관이 첫 현대미술 기획전인 'APMAP'를 선보인다. 이번 전시에서 14팀의 작가들은 오산의 아모레퍼시픽 뷰티사업장 곳곳을 회화와 조각 작품으로 채웠다. 일상의 현장을 미술관 기획전시장으로 바꾸어 관람객들에게 보다 다양한 미술체험을 할 수 있게 하였다.





AnLstudio는 파이프와 호스밴드 등 독특한 재료들로 동굴을 연상시키는 설치 작업 (SOLIDification)을 선보인다.



1 벽돌에 사람의 이름과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들을 새겨 조합한 김승영의 〈누구나 마음 속에 정원이 있다〉. 2 물에 비친 그림자로 인해 별 모양이 완성되는 작업을 선보인 최기창의 〈Rising Falling(Cygnus)〉.

경기도 오산에 위치한 아모레퍼시픽 뷰티사업장은 대단히 매력적인 건물이다. 단순하고 명료한, 미니멀리즘에 기반한 납작한 건축양식은 붉은색과 흰색으로 마감되어 녹색의 잔디 위에 선명하게 자리하고 있다. 국내 작가 14팀이 바로 이 건물 주위에 조각과 평면 작업을 하였다. 이른바 'APMAP(amorepacific museum of art project)'이라고 명명된 현대미술 프로젝트의 첫 번째 전시이다.

아모레퍼시픽의 각 지역 사업장과 그 주변을 순회하며 전시되는 이번 프로젝트는 한국 현대미술을 대표하는 작가들을 초청해 그들의 작업을 야외 공간에 설치하는 기획전이다. 작품을 전시장 내부에 들어가서 감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일상의 공간에서 지나는 누구나 작품을 통해 작가와 함께 호흡하고 생활할 수 있게 했다. 아모레퍼시픽 사우들과 지역민들 또한 적극적으로 즐길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다. 오산에 자리한 뷰티 사업장 사옥주변에 마련한 이번 전시의 이름은 《REVERSCAPE》다. 모종의 반전을 도모하는 풍경을 선사한다는 의미일까?

갤러리 1의 흰 벽면에는 마치 담쟁이처럼 금속성의 기하학적 구조를 지닌 김주현의 작업이 증식되어 간다. 그것은 자연계의 생명체, 부드

럽고 유기적인 식물과 같은 상상력으로 식물을 모방하면서 차가운 건물의 외벽을 감싸고 있다. 잔디밭의 검은색 판석 위에 자리한 정혜련의 작업은 불투명한 광학산 PC를 재료로 만든 복잡한 구성물로 붉은색 조명이 명멸하면서 기이한 생명체처럼 보이게 자리하고 있다. 곡선과 구부러진 형태들로 뒤얽힌 이 입체물은 공간에 드로잉하듯 직선으로 이루어진 건물에 자유롭고 해학적인 표정을 만들어 보인다. 박기원은 붉은색 건물의 외벽에 알루미늄으로 만든 타원형의 얇은 판을 수직으로 잇대어 부착했다. 흡사 뼈나 대나무를 연상시킨다. 마치 건물이 인간의 뼈마디나 대나무의 마디처럼 자라나는 상상을 하게 만든다. 눈부시게 하얀 실내 전시장 벽면에는 직사각형의 대형 캔버스가 걸려 있다. 습성이 강한 화면 위로 세포나 식물의 씨앗이 부유하는 듯한 도운희의 회화 작업이다. 이번 전시는 매력적인 건물의 내외부에 미술 작품이 교묘하게 개입해 들어가 그 공간을 활력 있게 살아 숨 쉬는 신비스러운 장소로 만들어 미술 같은 체험을 안겨 준다. 일상적인 생활 공간에 미술 작품이 존재함으로써 환상적인 모습으로 바뀌어 작품을 바라보고 그 안에서 생활하는 인간의 의식과 감정에 조금씩 반항을 일으킨다는 변화가 그저 놀라울 따름이다.





1

2

1 벽면에 냉골이 수놓아진 듯 금속성의 기하학적 구조를 지닌 김주현의 <냉골>. 2 박기원의 <빠>는 붉은색 건물의 외벽에 알루미늄으로 만든 타원형의 얇은 판을 붙여 작업했는데 멀리서 보면 뼈마디나 대나무를 연상시킨다. 3 정승운의 <공제산-芝山>은 벽면에 영지버섯을 연상시키는 목재 소재의 설치 작업이다.

본래 조각은 광장의 중심에 자리한 높이 솟은 좌대 위의 위인이나 신의 몸이었다. 그것은 존경과 관심, 불멸과 영원성을 보장받기 위한 것이었다. 그래서 인간의 삶과는 비교할 수 없는 단단하고 견고한 돌이나 청동으로 제작되었고, 모두가 우리러보도록 자리해 왔다. 그렇게 오랫동안 전통적인 조각은 종교와 신화, 위인과 불멸을 상징하고 기억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역할을 해 왔다. 그러므로 조각은 태생적으로 종교적이다.

반면 현대 조각은 그러한 주술성을 벗어던진다. 현대에서의 조각은 더 이상 신이나 위인의 영원불멸한 몸이 아닌 일상적인 삶의 현장 안으로 스스럼없이 들어와 생활 속에 스며든다. 그래서 현대 조각은 규정된 틀을 깨고 늘 신선하게 우리의 주목을 끈다. 또 조각의 재료 역시 견고하고 영속적인 물질만이 아니라 부드럽고 연약하거나 가변적이고 일시적인 재료 등 어느 것이든 기꺼이 사용된다. 재료 역시 돌이나 나무, 청동 등의 자연물에서 기인한다. 기존의 건물이나 특정 공간에 잠시 서식하다가 사라지기를 거듭하는 현대 조각 중에서도 이른바 설치 미술은 이미 우리의 삶 속에 호흡하는 미술문화로 자리해 있다.

때문에 조각의 물질적 속성, 즉 공간 속에 존재하는 '미술 형태로서의 현존성'이나 '조각의 형태나 재료' 등은 그리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 오히려 '무엇'보다는 '왜'에 흥미를 갖게 된다. 즉 특정 조각 작품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작품이 어떤 공간에 왜, 어떻게, 놓이게 되었는지가 궁금하고, 왜 시선의 주목을, 감정의 파문을, 의식의 혼란을 야기하는지가 관심의 초점이 되었다.

그래서 지금의 조각 작업은 '우리의 감수성에 최대한 갈등을 일으키고자' 한다. 또한 전통적인 경질의 조각 재료가 갖는 영구성을 대신해서 갖가지 재료들이 다채롭게 활용되어 그 작품의 재료가 시간이 지날수록 자연스레 변화해 가도록 조율하는 데에 작업이 집중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작품 대부분은 점차 소멸되어 간다는 점에서 생명의 주기를 닮아 있다. S

에디터 신정희 글 박영택(경기대학교 예술대학 교수, 미술평론가) 사진 문성진



아모레퍼시픽미술관

“현대미술과 고미술을 조화시킨 새로운 형태의 전시 선보일 것”

아모레퍼시픽미술관은 창업자 장원(莊源) 서성한 선대회장이 수집한 미술품을 기반으로 출발했다. 1979년 태평양박물관을 시작으로 2009년 아모레퍼시픽미술관(APMAP, amorepacific museum of art project)으로 명칭을 바꾸고 고미술과 현대미술을 아우르는 미술관으로 전시와 연구, 출판 활동을 하고 있다.

2017년 서울 용산에 아모레퍼시픽 신사옥이 완공되면 아모레퍼시픽미술관도 신사옥으로 이전하여 새로운 미래를 시작하게 된다. 현대미술은 물론 고미술을 조화시킨 새로운 형태의 전시들이 관객들과 만나게 될 것이다. 또 한국과 외국의 현대 미술품 전시를 펼쳐 보일 다양한 공간으로 구성된다. 다채로운 미술관 교육을 실현할 중소형 시설과 대형 강당이 설치되며 미술 전문 아카이브를 통해 연구자에게 기여할 공간도 갖추게 된다.

미술관 건축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가 데이비드 치퍼필드(David Chipperfield)가 맡아 더욱 화제에 오르고 있다. 그는 지역의 전통과 역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간결하고 명확한 디자인, 자연과의 조화, 첨단기술과 재료를 바탕으로 자신의 철학을 구현한 건축물들을 비롯해 유럽을 대표하는 여러 미술관을 세상에 내놓았다. 데이비드 치퍼필드의 또 하나의 역작이 될 아모레퍼시픽미술관은 한국 미술과 세계의 작품이 공존하는 새로운 형태의 전시를 다채롭게 선보일 것이다.

전시 기간 8월 29일~11월 3일

전시 장소 아모레퍼시픽 뷰티사업장(경기도 오산시 가정산업단지 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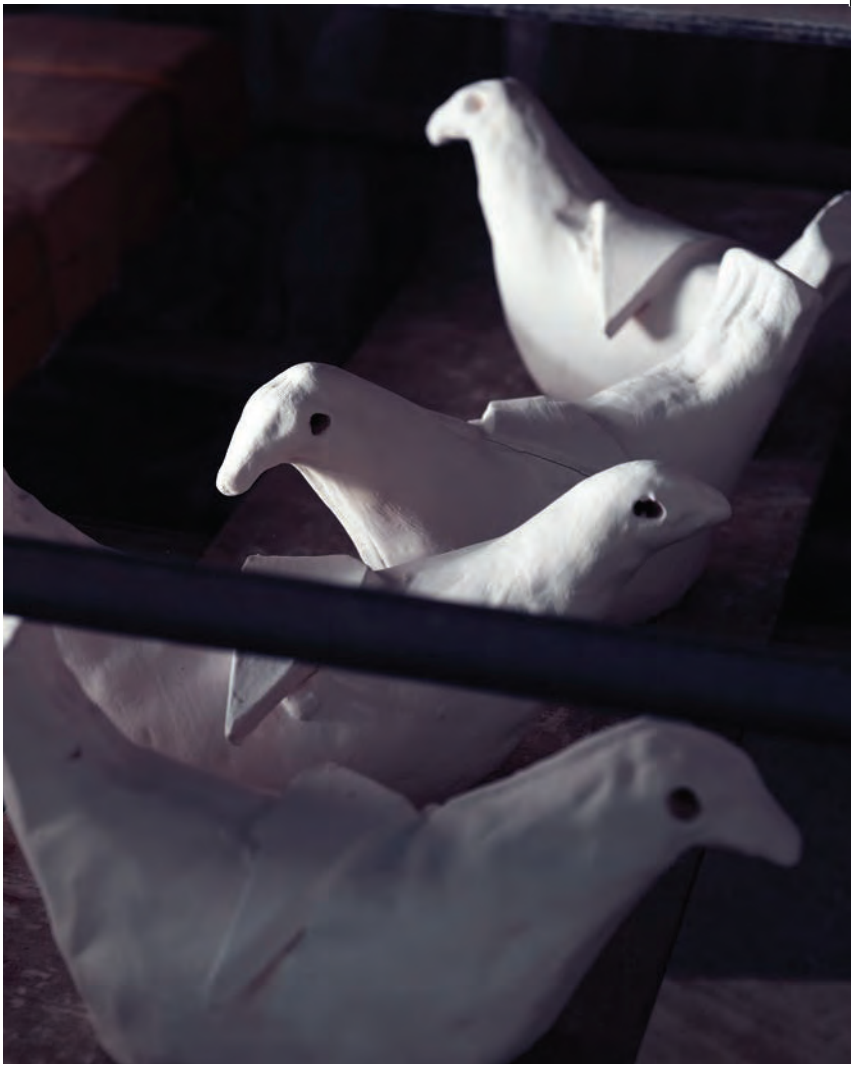
문의 031-280-5587/031-8047-1473, museum.amorepacific.com



도예가 이현정

손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노동의 정직함을 믿는다. 그도 그렇다. 흙이 마르기를 기다리며 살아 온 그의 생각꾸러미엔 어떤 침전물이 고여 있을까? 달 항아리를 만들다가 돌연 건축가 혹은 디자이너의 옷으로 갈아입은 그는, 자신의 행보가 외도가 아니라 '여행'이라고 했다. 그러니 이 이야기는 그의 짙막한 여행담이다.





도예가 이현정은 일명 '스타 작가'로 통한다. 지난 2009년 스위스 바젤에서 열린 '디자인 바젤 아트페어'에서 할리우드 스타 브래드 피트가 그의 작품을 구입하면서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그는 홍익대에서 도예를 전공하고 미국 샌프란시스코 아트 인스티튜트 대학원에서 조각을, 경원대에서 건축학 박사과정을 마친 이력 덕분에 도예뿐 아니라 설치미술, 조각, 건축까지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작업을 하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이현정 작가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키워드가 '여행'이다. 그는 여행을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늘 여행자의 신분으로 산다. 그 즐거움에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 대체 그는 왜 늘 짐을 싸 두고 사는 걸까? '정신적 여마살' 혹은 '예술적 여마살'을 등짐 삼아 사는 그의 이야기의 출발은 '집'에서 시작되었다. 작가 이현정을 떠올리게 하는 '달 향아리'는 그에게 집이다. 왜냐고?

"달 향아리 혹은 도예는 저에게 학습이죠. 도예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 시대의 정신을 배우기도 하고, 그 시간 동안 이뤄지는 명상이 하나의 학습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의 발언은 그다지 파격적이지 않다. 하지만 "제게 도예는 취미에 가깝다"라는 말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어지는 그의 이야기가 그를 설명하기에 적당하다.

"제가 도자기 외에도 조각 건축 디자인 등 다양한 작업을 하잖아요. 그건 도예라는 과정을 통해 얻은 걸 다른 작업에서 구현하고 있는 겁니다. 도예가 취미라고 한 건 도자기와 저 사이에 아무것도 개입되지 않다는 뜻입니다. 마치 취미처럼, 반면에 가구를 만들거나 할 땐 대중에게 어떤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할지에 대한 생각 등등이 끼어들어, 불편하죠. 오늘 아침에 설치작업을 하고 왔는데 카메라가 장착된 장난감 기차가 찍은 영상이 전시장 한쪽 모니터에 나오는 뭘 그런 건데, 그런 작업을 오래 하다 보면 가슴이 간질간질거린다는 느낌이 들곤 합니다. 도예 작업을 할 때가 됐다는 신호가 온 거죠."

한 곳에 함몰되는 자신의 게으름을 지독히도 경계하는 그가, 정신적 여행을 수시로 떠나는 이유는 그런 거였다. 그렇게 가슴이 간질거리는 느낌이 들 때, 그는 도자기와 마주 앉아 침잠한다. 어떤 간섭도 없이 대상과 직면하며 그는 휴식을 취하고 다음 여행을 기약하는 것이다. 마치 지친 여행자가 귀가해서 안온함으로부터 힘을 얻듯, 그래서 달 향아리는 그가 쉴 수 있는 집이다.

그는 도예를 취미라고 했지만, 제3자의 눈으로 보면 그에게 도자기는 장난감이라고 해야 더 정확한 표현이지 싶다. 아이와 장난감 사이에는 작가적 계산이나 메시지 전달 따위가 개입하지 않는다. 장난감은 아이의 울음을 그치게도 하고, 곤한 잠에 빠지게도 하는 부작용 없는 수면제가 되기도 한다. 그에게 도자기는 그런 것이다. 작가 이현정은 도자기라는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 밖에 나가 건축이나 디자인 등으로 세상과 소통하고, 그러다 지치면 다시 실컷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 잠이 들어 꿈을 꾸는 일을 반복하고 있다고 말해도 좋을 것이다. 그리고 그에게 도자기는 전통의 다른 이름이기도 하다.

작가와 달리 인터뷰이는 계산이 있어, '전통의 현대적 변용'이란 질문을 던졌다.

"스스로 생각해도 저는 전통과 밀접한 작업을 해 온 게 사실이죠. 하지만 그럴수록 전통과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려는 노력도 해 왔죠. 제가 달 향아리의 가치를 존중하는 이유는 익명성 때문입니다. 달 향아리를 비롯한 우리 전통문화나 미술은 한 사람의 천재에 의해 완성된 것이 아니라 시간의 집적으로 여러 세대가 이룩한 것이라 측면에서 그 가치를 존중하는 겁니다. 우리와 인접한 중국이나 일본과도 또 다른 문화의 생성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는 우리의 전통을 존중하지만, 전통의 단순한 복제는 거부했다. 달 향아리는 당시의 삶과 문화를 반

그는 도자기와 마주 앉아
침잠한다. 어떤 간섭도
없이 대상과 직면하며
그는 휴식을 취하고 다음
여행을 기약하는 것이다.
마치 지친 여행자가
귀가해서 안온함으로부터
힘을 얻듯, 그래서
달 향아리는 그가 쉴 수
있는 집이다.





영한 그 시대의 산물이라 아름다운 것이고, 자신은 그런 가치를 이 시대의 재료와 기술 형식 등으로 치환해 구현하는 쪽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의 그런 태도를 통해 우리는 그의 역마살을 한발짝 가까이 다가가 이해하게 된다.

서울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주 시골도 아닌 양평에 위치한 그의 집 겸 작업실은 산으로 오르는 길 끝에 있다. 길 끝 집을 짓기 위해, 노동의 순수함을 무던히도 사랑하는 그는 중고벽돌을 사서 혼자 가마를 쌓다가, 너무 힘들기도 하고 자신의 가마가 생겨 감격하기도 해서 새벽 4시에 대성통곡을 했단다. 그럴 때 보면 그는 요령부득의 아이 같다. 그가 책 한 권을 내밀었다. 아니나 다를까 책 한 권을 만드는 데 2년 가까이 품을 팔았단다. 손으로 생각하고 노동으로 실천한 그의 책은 견고했고, 그를 이해하는 단서가 되기에 충분했다. 여행자를 자임하는 그답게 책 제목 역시 〈The Journey〉다. 그런데 책 반쪽은 'Latitude(위도)'란 부제가 나머지는 'Longitude(경도)'란 부제가 붙어 있다. 씨줄과 날줄로 엮은 그의 책을 들여다보자. 먼저 'Latitude'편에는 그가 좋아하는 단어들로 목차가 짜여 있다. 열거하자면, '순수한 노동' '정의할 수 없는' '유희' '그 공간에 집을 짓다' '균형' '여행' '귀환' '사회 속 예술가'다. 그의 관심이 어떤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 짐작하게 하는 단어들이다.

“이 책을 통해 제 생각과 지나온 시간을 정리하자 여행은 귀환을 전제로 한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나에게 있어 여행은 돌아오기 위한 것이다’라고 쓴 책을 몇 군데 인용해, 정돈된 그의 생각을 훑쳐보자. “작가가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강하게 내세우는 것이 전략적으로든 뭐든 중요하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나는 내가 즐기고 싶어하는 욕구가 더 강해요. 그래서 다른 작업으로 이동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두 가지 미술 장르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고 경계를 연결시키고, 그런 작업이 오히려 나를 정의하는 작업이 된 게 아닐까요.”

그에게 장르는 흙으로 만든 벽인 모양이다. 흙을 오래 다룬 탓일까? 세상이 만든 그런 허술한 벽쯤은 쉽게 허무니 말이다.

“무언가 반복 생산하는 것을 참지 못해요. 내 작품에서 내 스스로 시리즈라고 부르기를 싫어해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나오는 것도 있지만, 난 시리즈라고 안 붙여요. 하나하나의 작업이 다 다른 것이라고 애기를 해요. 가능한 만큼, 내가 창작 의욕이 있는 만큼은 내가 작가가 됐든, 디자이너가 됐든 영혼이 살아 있어야 돼요. 나의 아이덴티티를 알리기 위해 어떤 하나의 심벌을 만들어서, 그걸 계속 알리는 식은 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뿌듯해진 건, 내가 다양한 많은 작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 이걸 해도 ‘이현정 것 같다’ 저걸 해도 ‘이현정 것 같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내가 다루는 매체는 어쩌면 수단인 것 같아요. 늘 매체를 통해 정신을 주입하게 되는데 내가 물병을 만들든, 가구를 만들든 뭘 하든 간에 그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정신, 생각이 드러나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참 지독히도 반복과 정제, 함몰을 꺼리는 그의 성향이 그대로 드러난 대목이고, 스토리텔러로서 자각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는 구절이다.

그의 작업실은 요즘 한시적 변신을 시도하고 있다. 설화문화전을 통해 인연을 맺은 옷칠장 손대현 씨의 도움을 얻어, 당분간 옷칠을 배우고 작업하기 위해 작업실을 세팅하고 있는 것. 이제 이현정의 흙은 옷칠이란 옷을 입게 되었다. 조만간 우리는 그가 떠난 또 한 차례의 여행을 통해 만들어진 새로운 풍경을 바라보게 될 것이다. S

글 최태원 사진 박재형



사슴피리
가을이면 은은히 노랗게 떨어지니



샛노란 은행잎이 떨어져 발에 밟히면 가을의 절정에 와 있음을, 이내 가을이 사라질
것임을 깨닫는다. 노란 은행잎을 보며 자꾸만 발아래를 살피는 것은 나도 모르게 노랗게
익은 은행이 어디에 숨었나 궁금하기 때문이 아닐까.

사실, 은행나무 열매가 약이 되려면 노랗게 익어 땅에 떨어질 정도가 되어야 하지만, 은행잎이
약이 되려면 그 잎에 푸른 기운이 창창해야 한다. 이렇듯 은행나무는 일생토록 푸르고
노랗게 자신을 변색시키며 우리에게 때에 필요한 약이 되는 셈이다.

에디터 김희성 사진 이종근 푸드아트 오정미 어시스턴트 양정은 캘리그래피 이규복

맑은 담황색의 약주, 은행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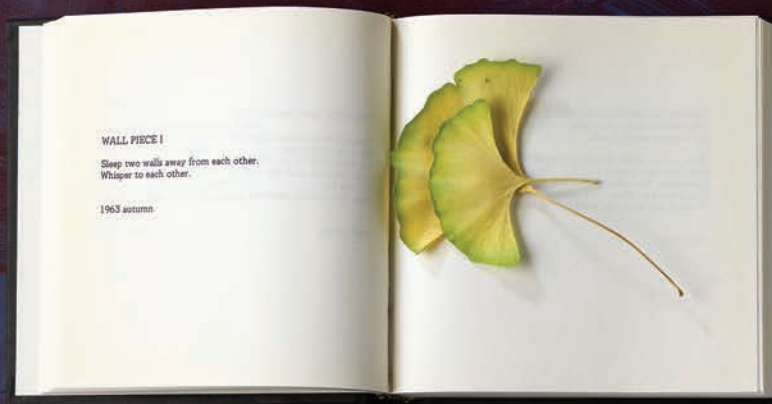
은행 주를 담글 때는 은행을 이용하기도 하지만, 주로 은행잎으로 담그는 것이 보편적이다. 은행잎이 노랗게 물들기 전 파란 잎을 따서 깨끗이 씻어 그늘에 말린다. 밀봉 용기에 잘 말린 은행잎을 담고 소주를 적당량 부은 다음 3~6개월 동안 우려내면 담황색의 맑은 술이 된다. 소주 대신 보드카를 넣으면 좀 더 향기로운 술을 얻을 수 있다. 또 은행을 술과 함께 안주로 내어 보자. 겉껍질을 벗긴 은행은 프라이팬에 한 번 더 볶아 속껍질까지 벗겨 준비하고, 대추는 씨를 빼 내고 동그랗게 말아 꼬지에 차례로 꽂아 술과 곁들여 낸다.



쫄쫄한 은행 찰밥

콩과 견과류가 들어간 밥은 한 그릇만으로도 영양이 가득하다. 계절이 바뀌는 환절기에 입맛을 잃은 가족들을 위해 은행을 넣어 찰밥을 지어 보자. 찰쌀은 반나절 정도 불리고, 은행은 살짝 볶아 속껍질까지 벗겨 준비한다. 불린 찰쌀과 은행은 잘 섞은 다음 소금으로 살짝 간을 하여 찜기에 엮는다. 김이 나고 찰쌀이 잘 익을 때까지 찜다. 한 김 식은 후에 먹으면 그 쫄쫄한 식감이 더 살아난다.





강한 생명력을 지닌 은행

은행은 천식 기관지염 가래 등에 도움이 되고 은행잎은 피를 맑게 해 피부 색을 맑고 깨끗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듯 은행은 신체에도 이롭지만 감성에도 이롭다. 학창 시절 은행잎을 따서 책갈피에 끼우던 가을의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매개체이기 때문이다. 옛 선비들도 은행잎을 서책에 끼워 두곤 했다. 은행잎의 항균작용이 책에 곰이 생기지 않게 해 주어 오래도록 보관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울가울엔 은행과 은행잎으로 보신도 하고, 낭만도 챙겨 봄이 어떨는지.



따뜻함이 그리워질 때, 은행잎 차

꾸준히 마시면 혈행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하여 인기가 많은 은행잎 차는 체온을 유지하는 데도 좋다. 날이 서늘해지는 요즘에 잘 어울리는 차다. 은행잎 차를 만들 때는 싱싱한 푸른 잎으로 준비한다. 노랗게 물이 들기 시작하면 독성이 강해져 차로 마시기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푸른 은행잎을 반그늘에 잘 말려 자른 뒤 은근하게 달군 팬에 볶는다. 볶은 은행잎은 따뜻한 물에 우려 차로 마신다.

붉은 단풍이 곱구나

단풍이 꽃보다 더 붉고, 새색시의 연지보다
더 붉게 피어 지천을 물들이는 순간이 더 귀한 것은
이내 차디찬 서리가 내려 이 고운 빛을 앗아갈 것을 알기
때문이지 않던가. 새색시의 밧그레한 볼이 귀한 것도
이와 다르지 않으니.

에디터 김희성 사진 이종근

방김거사야거(訪金居士野居)

-정도전

秋陰漠漠四山空(추운막막사산공)
落葉無聲滿地紅(낙엽무성만지홍)
立馬溪橋問歸路(입마계교문귀로)
不知身在畫圖中(부지신재화도중)

가을 구름 아득하고 온 산은 텅 비었는데
소리 없이 지는 잎은 온 땅에 단풍일세
개울가 다리 위에 말 세우고 돌아가는 길 물을 제
알지 못했네, 이내 몸, 그림 속에 있을 줄은.

자음생크림은 인삼과 인삼 열매의 핵심 성분이
노화의 흔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한방 고
농축 인삼 크림, 황기, 상백피 등의 한방 성분이
피부 안팎으로 촉촉하고 젊게 보양해 준다.







<추구집(推句集)> 中

-작가미상

白菊粉山面(백국분산면)
丹楓脂洞口(단풍지동구)
高月照深池(고월조심지)
紅葉下秋庭(홍엽하추정)

흰 국화는 산의 얼굴에 분을 칠하고,
붉은 단풍은 마을 입구에 연지를 바르네.
높이 뜬 달 깊은 연못에 비치고,
붉은 잎은 가을 뜰에 떨어지도다.

연성핸드크림은 해송자유, 연자유, 동백유, 매실유,
행인유로 구성된 5가지 천연유래 한방오일 조합체
가 메미른 손 피부 깊숙이 보습과 윤기를 주는 한방
핸드크림으로 끈적임 없이 부드럽게 흡수된다.



죽악기행



명창 전인삼이 목청이 아닌 온몸을
악기 삼아 흥보기를 열창하고 있다.



판소리의 성지, 남원의 소리를 찾아서

남원은 한국 민속음악의 정수이자, 세계인의 문화유산으로 공인된 '판소리'의 성지라고 해도 과히 틀린 말이 아니다. 그러나 그곳에 민속음악의 진흥을 모토로 삼은 국립민속국악원이 튼실한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건 당연한 일이다. 춘향가의 모태인 광한루원의 완월정에서 매주 목요일에 펼쳐지는 상설 무대를 보기 위해 작심하고 길을 나섰다.



흙이 불을 받아야 도자기가 되듯, 저 북 역시 연주자의 손을 타야 비로소 몸을 울려 고저장단의 소리를 낼 것이다.

해마다 4월이면 춘향제가 열리는 남원은 춘향전의 고향이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 지역적 배경을 설명하기 어려운 적벽가와 수궁가를 제외한 판소리 다섯 마당 중 셋, 즉 춘향가와 흥보가는 물론이고 심청가의 지역적 배경인 전남 곡성 또한 조선시대엔 남원부에 속했으니, 이 세 마당이 모두 남원이란 고장에서 발원한 세계문화유산이다. 그러니 남원을 판소리의 성지라고 할밖에.

남원에서 춘향가를 듣는 일은 모차르트의 교향곡을 그의 고향 잘츠부르크에서 듣는 것과 매한가지 흥분을 선사한다. 하지만 이른 시각, 아직 무대가 꾸며지지 않은 완월정엔 근동에서 마실 나온 어르신 몇 분이 완월정을 베개 삼아 오수를 즐기고 계셨다. 아직 무대가 아닌 일상의 공간인 것이다. 하지만 잠시 후면 완월정엔 춘향가의 사랑가가 울려 퍼질 것이다. 꿈자리를 탈탈 털고 일어난 어르신들과 눈이 마주친다. 남원에서 태어나 머리에 흰서리 엮은 분들만이 누릴 수 있는 호사가 저런 것이리라.

공연 준비에 진땀을 흘리고 있던 국립민속국악원 장악과의 김갑수 씨가 다가와 인사를 건넸다. 그에게 던진 첫 질문은 민속국악원이 다른 국악원들과 무엇이 다르냐는 거였다.

“아무래도 판소리와 창극을 기관특성화 사업으로 삼고 있다는 점이겠죠. 물론 정악도. 하지만 해마다 대표 브랜드인 창극에 집중하고 있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죠. 특히 언제든지 관객들이 남원에 오시면, 최고의 춘향가와 흥보가의 창극을 보실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그는 인터뷰 내내 창극에 방점을 찍었다. 국립창극단을 비롯해 많은 창극단이 있지만, 20여 년의 경험 축적으로 쌓은 연기력과 빼어난 판소리 성음을 자신하는 민속국악원 창극 단원의 기량이 탁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25명의 창극 단원을 비롯해 기악, 사물, 무용 등 86명의 단원들이 기획 공연과 상설 공연 등 빠듯한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국립민속국악원은 지난 1992년 창단 이래, 국악의 성지인 남원을 지키고 있다. 여기서 반드시 알아둘 것이 있다. 남원을 국악의 성지라고 말하는 건 판소리 세 마당의 지역적 배경이란 측면도 있지만, 동편제의 발상지이기 때문이다.

아니, 발상지임은 물론이고 그 거대한 기풍이 전승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그런 점에서 전인삼 명창만한 증언자가 또 있을까? 그가 바로 기왕이란 칭호로 불리는 비조 송광록에서 송만갑, 강도근으로 이어지는 동편제의 적자이니 말이다.

“왜 서울 안 가고 남원에 사냐고요? 저 서울 살아요. 여기, 남원이 판소리의 서울이니까요.”

짧고 명쾌하게 답하는 그의 기풍이 남다르다. 그가 남원을 지키는 데는 스승 강도근의 유훈도 한몫했다. 작고하시기 전 스승은 제자에게 “네가 동편제의 6대니께 남원을 뜨지 말아라”는 소리를 귀에 못이 박히게 했단다. 생김새도 소리도 다부진 그가 소리꾼이 된 과정은, 한 사람의 개인사가 아니라 남원이 왜 판소리의 성지인가를 설명하는 또 다른 방법도 된다.

어릴 적 동청(마을회관) 아래 살던 권번 행수기생 출신의 퇴기가 부르는 흥타령을 처마에서 떨어지는 비를 흠뻑 맞으며 즐겨 들었던 소년의 집은 국악원 근처였다. 그러니 마루에 앉아 있으면, 강도근 선생이 제자들 가르치는 소리가 귀를 닫아도 들려왔다. 당대 최고의 명창 소리를 거저 들으며 자란 그가 스승의 문하생이 된 건 고교 2년 때의 일이었다.

“춘향제 때 학생들이 가장 행렬을 하는데, 라디오 귀동냥으로 소리 흥내를 곧잘 내던 제가 월매 분장을 하고 녹음기 대신, 한나절 만에 외운 박초월 선생의 이별가를 불렀더니, 할매들이 줄줄 따라오며 ‘어디서 이런 기생을 불렀냐고 난리를 쳤고, 그 모습을 보신 교장 선생님이 펄쩍 뛰며 반대하던 어머니를 설득해 강도근 선생의 제자가 된 거죠.”

1 이날 상설 공연의 마지막 무대였던 사물놀이의 연주자가 공연의 마침표를 찍기 위해 절정으로 치닫고 있다. 2 대금 선율로 청량해진 바람을 지리산 자락까지 날려 보내려는 듯 한량무가 '선'의 극치를 보여 주고 있다.



광한루원은 남원 사람들의 정신적 토대이자, 정서의
젓줄이며 대물림된 휴식의 공간이다.



“남월”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한 명창의 입문기가 아닐 수 없다. 동편제의 종가를 지키고 있는 그에게 내친 김에 동편제와 서편제의 차이를 쉽게 풀어 달라고 부탁했다.

“비유하자면 동편제가 파이프에 소리를 빈틈없이 꽉 채워 내보낸다면, 서편제는 파이프에 약간의 공간을 두기 때문에 동편제에 비해 불기 수월한 창법이라고 보면 됩니다. 서정시와 서사시의 차이라고 하면 이해하기 편한가요? 두 제는 음양처럼 서로 갈라지기도 하고 조화를 이루기도 하면서 관객들의 추임새를 구하는 것이지 우열이 있는 건 아닙니다.”

무릎을 무릅쓰고 소리를 청하니, 광한루 앞 다리 위에 선 그가 부채를 반달 모양으로 펼치며 일성을 내지른다. 순간, 나른한 오후에 산책을 즐기던 관광객들의 흐릿하던 눈길이 그에게 쏠리고, 하릴없던 연못의 노회한 잉어들도 흠칫 놀라 정색을 한다.

잠시 한눈을 판 사이, 남원의 달을 감상하라는 완월정에 ‘소리의 달’이 떴다. 가야금, 거문고, 해금, 피리, 아쟁이 힘을 합한 산조합주로 무대의 문이 열린다. 기악으로 시동이 걸린 무대에 곧 이어 판소리 입체창이 울려 퍼진다. 입체창이라 함은 독창인 판소리와 달리 2~5명의 창자가 배역을 나눠 부르는 창극의 원초적 형식을 가리킨다. 춘향과 이도령으로 분한 두 명의 선남선녀 소리꾼이 소리를 주고받는데, 진짜 연인사이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연기가 찰지다. 관객들의 추임새가 곳곳에서 붉은 백일홍 꽃망울 터지듯 쏟아져 나온다. 이어진 무대, 도포자락을 휘날리며 등장한 한 마리 학 같은 무용수가 한량무로 더위를 씻어 주더니, 춤사위로 한층 밝아진 눈 다음엔 귀를 씻어줄 차례라는 듯 두 명의 여성 창자가 청춘가와 태평가 뱃노래 같은 귀에 익은 곡으로 관객들의 흥을 돋운다. 한 시간 넘게 계속된 공연의 마무리는 사물놀이이다. 각기 다른 음색을 지닌 사물이 어찌 저리 조화롭고, 사람의 심장을 쥐락펴락 하는 것일까?

공연이 끝나기 전 무대 위 공연자들에게 주었던 눈길을 거둬, 객석을 바라본다. 휠체어를 버리고 힘겹게 정자에 오른 장애인들이 기능기조차 힘든 목으로 장단을 맞추고, 국악원에서 초청한 산간벽지 청소년들이 목말라하던 문화를 양껏 향유한다. 무대를 거둬내자 완월정은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일상으로 돌아간다. 노련한 추임새로 공연에서 한뭇을 하던 어르신들이 다시 낮잠을 이어간다. 시끄럽기만 하던 광한루 매미 울음소리에 춘향가의 곡조가 얹혀 들린다. S

글 최태원 사진 왕태균



1 선비처럼 한껏 치장한 연주자가 대금을 불어 유서 깊은 광한루원의 습한 공기를 뚫어 내고 있다. 2 국립민속국악원 장악과의 김갑수 씨. 그는 인터뷰 내내 창극에 방점을 찍었다. 국립창극단을 비롯해 많은 창극단이 있지만, 20여년의 경험 축적으로 쌓은 연기력과 빼어난 판소리 성음을 자신하는 민속국악원 창극 단원의 기량이 탁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은 것이다.

국립민속국악원

판소리의 고장인 전북 남원에 1992년 3월 들어선 국립민속국악원은 민속음악 예술의 보존과 전승을 국가 브랜드로 창출하기 위한 전략적 사업으로 전개해 오고 있다. 특히 남원 지역을 대표하는 판소리를 비롯해 고품질의 전통 창작극을 꾸준히 개발하는 것이 국립민속국악원의 주요 사업이다. 아울러 문화양극화 해소와 민속음악 예술 향유를 위해 각종 기획 공연, 계층별 눈높이를 고려한 맞춤형 공연서비스, 문화소외계층 초청 프로그램, 토요 판소리 여행과 같은 수요자 중심의 체험서비스 등 다양하고 참신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체계적인 민속음악자료의 발굴과 정리, 분석 등 각종 학술자료도 제작, 보급하고 있다.



〈국악기행〉에 소개된
동영상을 감상해
보세요



QR코드를 찍거나, 설희수 홈페이지의 설희수 매거진 e북을 방문하시면 9/10월호 〈국악기행〉에 소개된 국립민속국악원의 ‘산조합주’ ‘춘향가 中 사랑가’ 등을 동영상으로 감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소리에 담긴 고유의 정서를 생각하며 감상해 보세요.



활, 그 팽팽한 힘을 돌아보다

매년 예술을 통해 전통과 현대의 새로운 소통을 모색하는 '2013 설화문화전'의 주제가 '활'이다. 우리에게 활은 수천 년의 세월 동안 팽팽하게 활시위를 당긴 채 우리 곁에 머물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에서 그 우수성을 널리 인정받고 있다. 활 이야기를 통해 곧 시작될 2013 설화문화전의 주제를 미리 살펴본다.





경북 고령군에서 출토된 5~6세기 경의 화살통. 가죽 등 유기물로 이루어진 화살집을 보강함과 동시에 외면을 화려하게 장식하기 위하여 구름무늬나 용무늬를 새긴 금동판을 덧대어 못으로 고정하는 것이 특징이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정조 14년(1790)에 편찬된 종합 무예서 <무예도보통지(武藝圖譜通志)>에는 궁술이 없다. 왜군의 조총에 호되게 당한 지 2백여 년. 이제 활은 무기로서의 효용을 잃고 용도폐기된 것일까? ‘큰 활 잘 쓰는’ 동이족(東夷族)의 명맥은 기어이 끊어지는가? 문약(文弱)한 선비들의 나라 조선에서 활은 쇠락의 운명을 피할 수 없었던 걸까? 그렇지 않다. 한민족은 뺏속 깊이 궁수의 기질을 타고난 민족! 수천 년간 팽팽했던 그 활시위가 하루아침에 끊어질 리 만무하다. 정조 때 그런 일이 일어났던 데는 그만한 사정이 있다. 곡절은 잠시 후에 살펴보고, 우선 동이족의 유전자부터 파헤쳐 보도록 하자.

활의 땅, 문화를 꽃피우다

‘활쓰는 민족’을 말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고구려 고분벽화다. 마상(馬上)에서 사슴과 범을 겨누고 있는 무용총 수렵도 속의 궁수들. 고삐를 놓은 채 시위를 당기는 모습도 늙름하거나, 몸을 뒤로 돌려 목표물을 조준하는 고난도 궁술에선 달인의 경지마저 느껴진다. 하지만 그건, 적어도 고구려에선 특별한 게 아니었다. 10세기에 중국에서 편찬된 <구당서(舊唐書)>엔 고구려의 활쏘기 교육이 상세히 언급되어 있을 정도로 고구려는 궁수들의 제국이였다. 민족사의 고비마다 술한 영웅과 무용담을 만들어 내온 활의 명맥은 조선에서도 의연히 이어졌다. 무예에 능한 관리를 뽑는 무과(武科)의 주요과목들 중 하나였고, 임용 후에도 활쏘기 성적이 나쁘면 진급이 불가능했다. 문제는 그로 인해 병사들이 창칼 수련을 게을리하고 활쏘기에만 매진했다는 것. 이런 상황이 장기화되자 결국 정조 임금의 특단의 조

치를 내린다. 어명에 의해 편찬된 <무예도보통지>에서 활 관련 내용들을 아예 빼도록 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 책에서 활이 빠진 건 궁술이 쇠락해서가 아니라 거꾸로 활쏘기가 지나치게 성행했던 까닭이다. 흥미로운 건, 임진왜란 이후 쇠퇴할 뻔했던 활문화를 부흥시킨 장본인이 다름 아닌 선조 임금이라는 점이다. 왜란 때 불타버린 경복궁 건춘문 안에 활터 오운정(五雲亭)을 세워 민간에 개방한 게 바로 그였다. 비록 무기로서는 한계를 드러냈을지언정, 활은 여전히 ‘호국 무예’로서 온 백성이 갈고 닦아야 한다는 게 그의 믿음이었다. 그건 “이제 활은 무관들만의 것이 아닌 온 백성의 것”이라는 일종의 칙령인 셈이었다. 그날 이후 도성엔 백성들의 활터인 민간 사정(射亭)이 나날이 늘어났다. 활터들끼리 기량을 겨루는 편사(便射)도 성행해서, 사정끼리는 ‘터편사’, 향교끼리는 ‘향편사’, 마을끼리는 ‘골편사’가 도처에서 열렸다. 도성 안팎 수십 개 활터들이 모두 참여하는 ‘장안편사’는 17~19세기 서울의 최고 이벤트였고, 단오와 한가위 때 열리는 ‘활 백일장’은 3~4일간이나 이어지며 구름 같은 구경꾼들을 불러 모으곤 했다. 선비들은 활터 옆에 지필묵을 갖다 놓고 활쓰는 틈틈이 사군자를 치거나 시를 지었다. 묵객들의 고장인 진주 남강에선 1960년대까지도 갖쓰고 도포 입은 선비들이 활을 쏘며 시를 읊는 광경을 볼 수 있었다. 바윗덩이에 흙을 파서 만든 거대한 벼루엔 먹물이 흥건했고, 논개의 후예인 진주 기생들은 장구와 가야금을 끼고 앉아 선비들의 시에 곡을 붙이고 창(唱)을 했다. 남녀 궁수들이 달 밝은 밤에 즐기던 야사(夜射)는 으레 이런저런 야사(夜事)로 이어졌을 터였다.



1 나무로 된 통에 옷칠을 하고, 몸체에 매화 무늬를 사실적으로 조각해 붙여 끈을 달 수 있도록 제작된 조선시대 화살집. 투경의 동근 끝부분에는 여러 개의 풀잎 무늬를 겹쳐 놓은 듯이 양각하여 붙였다. 2 부채꼴 모양 두 개가 연이어져 축신(鐵身)을 넓게 펼친 듯 보이는 동합금제로 만들어진 고구려시대 화살촉. 3 축신이 부채꼴 모양의 솜베(갈이나 화살촉 등을 지루나 살대에 끼울 때 속으로 들어가는 부분)가 있는 유경식(有莖式) 도끼날형촉의 고구려시대 화살촉. 4 청동기시대 중서부지역을 대표하는 대규모 취락지인 충청남도 부여 송국리 유적에서 출토된 돌화살촉. 이곳에서 출토된 화살촉은 모두 솜베가 있는 것으로 등날이 솜베 끝까지 내려와 있다. 모두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활 속의 정신, 정신 속의 활

활쏘기는 단지 무예나 생활문화에만 그치지 않았다. 윌리엄 텔이나 로빈 후드, 또는 몽골 기병들과 구분되는 한민족의 특징은 활이 정신 수양의 도구였다는 것. 고(故) 이규태 선생의 ‘활과 선(禪)’이라는 글엔 이런 대목이 나온다. “명궁이 되는 데는 무심지경의 터득이 선행된다. 아내가 베를 짜고 있는 베틀 아래 누워서 좌우로 부산하게 오가는 실 북을 응시하길 수삼 년 한다. 수련을 쌓을수록 좌우로 오가는 이동 폭이 점점 줄어들어 끝내는 북이 고정된다. 마음과 대상이 하나로 융합되어, 마음이 움직이는 대상에 구애받지 않게 된 무심지경이 그로써 입증되니” 바로 궁술(弓術)과 구분되는, 궁극의 섭리로 나아가는 ‘궁도(弓道)’인 것이다.

고은 시인은 1970년대에 ‘화살’이라는 시로 시대의 아픔을 노래한 바 있다. ‘우리 모두 화살이 되어 / 온몸으로 가자 / 허공 뚫고 / 온몸으로 가자 / 가서는 돌아오지 말자 // (중략) / 저 캄캄한 대낮의 과녁이 달려온다 / 이윽고 과녁이 피 뿜으며 쓰러질 때 / 단 한 번 / 우리 모두 화살로 피를 흘리자 // 돌아오지 말자 / 돌아오지 말자 // 오 화살 정의 병사여 영령이여’

그가 떠올렸던 게 총알이나 탄환이 아닌 화살이었던 건 아마도 활과 시의 공통점 때문이었으리라. 과녁에 꽂히는 화살, 그리고 독자의 가슴에 꽂히는 언어! 화살이라는 시어(詩語)로 시대의 정곡(正鵠)을 찌른 언어의 신궁(神弓)! 그의 이름이 매년 노벨문학상 후보에 오르내리는 데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아니 어찌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도 모른다. 허다한 시어들 중 시인이 굳이 화살을 고른 건 몸속을 휘돌고 있는 핏줄 때문인지도 모른다. 그 옛날 만주에서 시위가 당겨진 이후 줄곧 겨레와 함께하며 역사를 관통해 온, 한민족의 정신 속에서 여전히 날아가고 있는 화살 때문이었던 지도 모른다. S

에디터 김희성 글 박경수

雪花文化展

2013 설화문화전

‘활力’

아모레퍼시픽 설화수는 우리의 전통미를 알리며, 친근하게 하는 데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한국 전통미를 찾아 계승 발전시키고 있는 전통 작가와 현대 작가의 작품과 전시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로 7회째를 맞이하는 ‘설화문화전은 이미 한국적인 아름다움을 이어가고 있는 상징적인 전시회로 자리 잡았다. 지난 2012년 ‘흙, 숨 쉬다. 옹기’전이 세간에서 귀하게 대접받아 온 백자나 청자가 아닌 일상에서 늘 사용되는 옹기에 주목하여 우리 생활에 밀접한 아름다움을 조명했다면, 2013년 ‘설화문화전’에서는 전통 활의 우수성을 조명하고, 활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한국적인 미감을 새롭게 재해석하는 시간을 마련한다.

전통 대물림의 방식으로 문화를 유산으로 만들고 있는 공장, 시장, 전통장 등 전통 장인의 작품에서부터 현대와 전통을 넘나들며 국내외에서 신선한 작품을 선보이고 있는 현대 작가의 작품까지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

전시 기간 10월 25일(금)~11월 9일(토)
 전시 장소 갤러리 인(서울 종로구 팔판동)
 문의 02-788-7313

Amorepacific's Sulwhasoo is engaging in various activities to revere, introduce, and share the traditional beauty of Korea. One of these activities is concentrated on sponsoring the masterpieces and exhibitions of both traditional and modern artists who explore and succeed the traditional aesthetics of Korea. The Sulwha Cultural Exhibition, which is celebrating its 7th anniversary, has already gained recognition as a symbolic exhibition which showcased the Korean beauty. The exhibition in 2012 on 'Earth, breathes - Earthenware' focused on the earthenware that were being used every day, instead of the precious and rare white porcelain and celadon, in order to highlight its practicality and beauty. The 2013 'Sulwha Cultural Exhibition' will spotlight superiority of traditional bows and reinterpret the Korean traditional art that you can find in the bows.

It brings together the cultural heritages created by the traditional craftsmen including Gungjang (bow masters), Sijang (arrow masters), and Jeontongjang (arrow case masters) who have succeeded the traditional methods and the works of modern artists who combined innovation and tradition in order to present unique creations.

Exhibition period: October 25, 2013~November 9, 2013
 Location: Gallery in Palpan-dong Jongno-gu, Seoul
 Contact: +82-2-788-7313

참여 작가

구병준, 권무석, 김동학, 김윤경,
 네임리스, 박천욱, 유세현, 유영기,
 하지훈, 大元



설록다원

10가지 찻자리 이야기 차, 청정함과 고요함을 말하다

한 잔의 차를 마시는 것은 외부의 온갖 소음으로부터
떨어지는 조용한 사색의 시간이다.



OSULLOC
JEJU TEA GARDEN SINCE 1978

MOON OF JEJU
— SPECIAL TEA —

달빛걷기
두근 뛰기 좋아하는 기분, 달이다.
Moon Walk ☾
Azure night beach where the moon dances
19g(15g x 10개)

차의 정신, 청(淸)과 적(寂)

차는 불가에서 선(禪)을 수업하고 깨달음을 얻는 데 반드시 필요한 필수품이었다. 차를 마시면서 어떠한 철학적인 사유를 하기보다 정신적, 신체적으로 나약해지기 쉬운 수도승에게 활력을 주고 번뇌를 씻게 하는 영험한 효능이 있다고 믿은 것이다. 차를 참선의 가장 친근한 식재로 받아들임으로써 '중생을 괴로움으로부터 구하고, 마음을 맑게 하여 본래의 자기를 깨닫게 하는' 신통한 효능을 갖고 있다고 본 것이다. 차도의 정신과 선의 정신이 서로 하나라는 '다선일미(茶禪一味)'라는 말처럼 평상심은 곧 도이자 선이라는 생각은 차에 대한 마음가짐을 다시 한 번 돌아보게 만든다. 맑은 한 잔의 차처럼 깨끗하고 고요한 마음가짐은 현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 아닐는지. 잠시도 조용할 날이 없는 외부 환경과 늘 번뇌와 갈등을 일으키는 스트레스들로부터 마음을 잠시라도 고요하고 투명하게 평정심을 유지하는 시간을 갖는 것은 중요하다. 바쁜 일상 속에서 찾을 수 있는 한가로움은 멀리 있지 않다.

우리의 차 문화는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소담과 은둔, 풍류와 한가로움에 있다. 차를 마시는 시간이 바로 자신의 내면과 만나는 은밀한 순간이자, 진정한 소통의 시간이기 때문이다. 도시 속에 있으면 온갖 소음에 시달리지만 일단 다실에 들어가 차 한 잔을 마주하면 방 안에는 고요함이 흐르고 외부 일은 잊은 채 벼슬을 하지 않고 숨어 살던 학자처럼 고고한 기품을 만끽할 수 있다. 차를 사랑하던 추사는 '조용한 가운데 혼자 앉아 차를 마심에 그 향기는 처음과 같고 물은 저절로 흐르고 꽃은 저만치 홀로 피니'라고 읊었다. 고요하지만 형언할 수 없는 안도감이 흐르는 다실의 풍경. 진정한 힐링의 공간이다.

가을, 사색의 찾자리 '신 오브 제주'

선선한 바람이 불어 책 한 권 읽기에도 좋고, 낙엽을 밟으며 산책을 하기에도 좋은 가을이다. 오랜만에 사색에 잠기기에도 좋은 계절. 차 한 잔을 마주하고 싶다면 '신 오브 제주(Scene of Jeju)'를 추천한다. 세계인들도 즐겨 찾는 신비의 섬 제주의 숨겨진 비경을 블렌딩한 듯 풍부한 맛과 향을 지녔다. 또 그림처럼 제주의 아름다운 풍광을 패키지에 담아 책상 위에 두고 보면 제주의 싱그러움이 그대로 전해지는 것 같다. 둥근 달이 출추는 푸른 밤바다, 금빛 노을 지는 해안가, 비가 내리는 사려니 숲길 등 제주의 비경이 한 잔의 차 속에서 되살아난다. 오랜만에 책을 꺼내들었다면 부드럽고 달큰한 배와 은은한 녹차가 조화를 이루는 '달빛걷기', 조용히 쉬고 싶을 때는 고요한 제주의 신비를 담은 오리엔탈 아로마 티 '비의 사색', 오후의 나른함을 달래고 싶다면 유자와 싱그러운 그린티와의 상큼한 만남이 조화로운 '햇살언덕'을 추천한다. 제주의 신비한 매력과 블렌딩 티의 무궁무진한 매력을 동시에 느껴볼 수 있는 차로 가을 찾자리에 훌륭한 동반자가 될 것이다. S

에디터 신정희 사진 임태준 도움 주신 곳 정소영의 식기점(02-541-6480), KCDF갤러리숍(02-733-9041) 참고 문헌 (다시 보는 차문화)정병만, 푸른길



위 '신 오브 제주'는 제주의 비경을 담은 5가지 제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1 비 내리는 사려니 숲길의 모습을 담은 오리엔탈 아로마 티 '비의 사색', 2 바람이 일렁이는 들길의 풍경을 담은 오곡차 '바람 노래', 3 유자와 싱그러운 그린티가 블렌딩 된 '햇살 언덕', 4 노을 지는 해안가를 모티브로 한 열대과일 티(Tea) '금빛 마중', 왼쪽 배와 녹차의 블렌딩으로 둥근 달이 출추는 제주의 푸른 밤바다를 그린 '달빛 걷기'.

탱탱한 피부를 위한 첫걸음

탄력 있는 동안 얼굴을 만들기 위한 지혜를 찾다.



지난여름, 바캉스에 대비해 다양한 다이어트를 시도한 여성들이 많다. 혹독한 다이어트를 거친 후, 몰라보게 들어간 뺏살에 감탄한 순간도 잠시, 거울을 보며 깜짝 놀라게 된다. 무리한 다이어트로 인해 탄력을 잃은 얼굴 위로 두드러진 주름 때문이다. 나이보다 죽히 뺏살은 더 늘어보이게 만드는 주름을 보면 한숨이 절로 나온다.

요즘처럼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피부 관리도 여름과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 얼굴 피부에 직접 닿는 찬바람은 피부 탄력을 떨어뜨리는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특히 이럴 때 유·수분마저 부족하면 피부 내외면의 탄력이 떨어져 잔주름이 생길 수 있어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피부 탄력이 떨어지면 얼굴선이 무너지고 입가 주변에 주름이 생기게 되는데, 이것이 나이 들어 보이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이다. 특히 요즘처럼 자외선이 강할 때는 자외선에 노출될수록 피부가 상하기 쉬우므로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 특히 입가는 탄력이 떨어지기 쉬운 부분. 입가 피부는 다른 부위에 비해 콜라겐이나 엘라스틴이 적은 편이라 쉽게 처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무엇보다 적극적인 케어가 중요한 시점이다.

화장품이 마땅치 않았던 옛 여인들은 깨끗하게 얼굴을 씻는 것으로 미용법을 대신했다. 청결한 세안이 모든 화장의 기본이며 잡티를 예방하고 피부노화를 방지하기 때문에 깨끗하게 세안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새벽에 일찍 떠 온 우물물을 세숫물로 사용하면 하늘의 정기가 녹은 물이 피부에 스며들어 정신을 맑게 하고 얼굴이 늙지 않는다고 믿었다. 또 옛 여인들은 세상에서 가장 순수한 물이 이슬이라고 생각해 아침 이슬을 받아 세수하기도 하였다. 이슬로 세수하기를 좋아했던 여인들의 마음엔 가장 순수한 물로 세수하므로 청결을 유지하려는 욕망과 이슬에 맺힌 기(氣)를 몸속에 받아들여 노화를 방지하고픈 소망이 담겨 있는 것이다. S

에디터 신영희 사진 양태준 도움 주신 곳 KCDF갤러리숍(02-733-9041), 정소영의 샵기정(02-541-6480) 참고 문헌 〈한국인의 미용풍속〉이연복·이경복, 월간 에세이, 〈한방화장품의 문화사〉(김남일, 들녘)

피부 노화 완화 역할을 하는 효소처리 홍삼 사포닌과 연자육 성분이 들어 있어 낯날개 옆부터 팔자 부위를 케어하는 예소침 크림&패치.



나이 보다 젊어 보이는 탱탱한 얼굴로 가까이 위하여

피부 나이를 결정짓는 팔자와 눈가 주름을 없애려면 미리 예방하는 것이 최우선. 좀 더 특별한 케어를 받고 싶다면 설화수 스파를 추천한다. 스파 전문 테라피스트들의 오랜 노하우가 담긴 기술과 설화수 제품들을 사용해 극진한 케어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주름개선 프로그램은 예소침 크림으로 케어해준다. 또 옥반지와 호박 톨을 이용해 얼굴을 마사지해 더욱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예소침크림은 설화수의 한방 과학 노하우를 바탕으로 홍삼의 사포닌 성분이 주름을 완화시켜 준다.

* 설화수 스파는 설화수가 추구하는 미의 철학과 가치를 전문가들의 손을 통해 직접 경험해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홈페이지 www.sulwhasoo.co.kr

롯데백화점 잠실점(4층) 운영시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문의 02-411-0262

롯데호텔 서울점 운영시간: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 문의 02-318-6121



|연극·뮤지컬|

프랑스를 대표하는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

빅토르 위고의 원작 〈노트르담 드 파리〉는 지난 오랜 시간 동안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작품이다. 이 위대한 원작에 프랑스 최고의 싱어송라이터가 작곡한 음악이 만나 더욱 생생한 감동을 전해 준다. 에디터 산정희



지난 1998년 프랑스 파리 초연 이후 전 세계적으로 1000만 명 이상 관람하고 국내에서도 수많은 마니아 층을 양산했던 프랑스 대표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가 4년 만에 한국어 공연으로 돌아온다.

이 작품은 15세기 프랑스 파리의 노트르담 대성당을 배경으로 이방인이었던 집시 여인을 사랑한 곱추 콰지모도의 슬픈 사랑 이야기다. 프랑스의 전설적인 극작가 플라몽동과 유럽의 대표적인 싱어송라이터 코치안테 등 세계 최고의 예술가들이 만들어 낸 〈노트르담 드 파리〉는 주옥같은 넘버들로 현재까지 1200만 장의 경이적인 OST 판매고를 기록하고 있다. 또 노트르담 대성당을 상징하는 대형 무대 세트와 100kg이 넘는 대형 종들, 감옥을 상징하는 쇠창살, 움직이는 기둥과 석상 등 30이 넘는 세트와 무대미술까지 남다른 스케일과 예술성을 자랑한다. 그로부터 4년 후 팬들의 식지 않는 열망에 대한 화답으로 한국어 라이선스 버전이 무대에 오른다. 집시 여인 '에스메랄다'를 향한 헌신적이고 안타까운 사랑을 선보이는 곱추 종지기 '콰지모도' 역은 홍광호와 윤형일이 맡았다. 또 콰지모도의 마음을 사로잡은 아름다운 집시 여인 '에스메랄다' 역에는 바다와 윤공주가 더블 캐스팅되었다. 〈노트르담 드 파리〉의 초연 멤버로 호평을 받았던 바다는 뮤지컬 〈스칼렛 펴퍼벌〉로 명실상부 디바로서의 면모를 과시했다.

일시 9월 27일~11월 17일 **장소** 블루스퀘어 삼성전자를 문의 02-541-3182 **관람료** VIP 13만원, R석 11만원, S석 8만원, A석 6만원

뮤지컬 〈아메리칸 이디엇〉



단 3일 만에 빌보드 차트 1위를 석권한 세계적인 슈퍼 밴드 그린데이(Green Day)의 음악으로 만들어진 록 오페라 형식의 뮤지컬. 이번 내한 공연은 브로드웨이 오리지널 투어 팀의 마지막 공연으로 더욱 기대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일시** 9월 5~22일 **장소** 블루스퀘어 삼성전자를 문의 1588-5212 **관람료** VIP석 15만원, R석 13만원, S석 10만원, A석 8만원, B석 6만원

뮤지컬 〈구텐버그〉



이 작품은 '버드'와 '더그'라는 두 신인 뮤지컬 작곡가와 작가의 브로드웨이 진출을 향한 이야기를 그린 극중 극 구조의 2인극이다. 이번 한국 초연 무대에는 송용진, 정상훈 등 훈남 뮤지컬 배우들이 캐스팅되어 가슴 뭉클한 감동을 선사한다. **일시** 11월 10일까지 **장소** 충무아트홀 문의 1577-3363 **관람료** R석 5만 5000원, S석 4만 4000원

뮤지컬 〈블랙 메리 포핀스〉



1926년 독일의 저명한 심리학자인 그란첸 박사의 미스터리한 살인 사건에 얽힌 심리 추리 스릴러 작품이다. 지난 제8회 한국뮤지컬대상 4개 부문에 노미네이트되었으며 올해 창작뮤지컬지원사업에 선정되는 등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일시** 9월 29일까지 **장소** 동국대학교 이해랑 예술극장 문의 02-548-0597 **관람료** 일반석 5만 5000원, 시아빙해석 4만 4000원

연극 〈아버지와 나와 흥매와〉



작가 김광택의 자전적 이야기로 간암 말기의 아버지가 혼수 상태에서 '굿을 해 달라'는 이야기로 시작한다. 우리 시대 아버지들을 위한 위로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관록 있는 배우 신구와 손숙이 출연해 살아 있는 연기의 진수를 보여준다. **일시** 9월 10일~10월 6일 **장소** 환물결아트센터 화이트홀 문의 1544-1555 **관람료** R석 5만원, S석 4만원, A석 3만원

수식이 필요 없는 대기들의 만남 〈정명훈 & 라디오 프랑스 필하모닉〉

마에스트로 정명훈은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인 지휘자로 손꼽힌다. 이번 라디오 프랑스 필하모닉의 지휘를 맡아 다시 한 번 그의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과 그에 조화를 이루는 오케스트라의 환상적인 연주가 더욱 기대를 모은다.



파리 오케스트라, 프랑스 국립 오케스트라와 함께 프랑스를 대표하는 3대 오케스트라인 라디오 프랑스 필이 6년 만에 세 번째 내한 공연을 갖는다. 2000년도부터 음악 감독을 맡아 온 정명훈은 '프랑스에서는 기능적으로 완벽한 오케스트라'라는 평가를 내리기도 했다. 자신의 음악적 본신을 바로 라디오 프랑스 필이라 칭하는 정명훈과 악단이 한 무대에 선다. 섬세하고 몽환적인 동시에 묵관 악기의 관능과 폭포수처럼 흘러지는 금관 악기의 생동감은 라디오 프랑스 필의 트레이드마크다.

프랑스 음악의 스페셜리스트 정명훈, 그리고 파리 오케스트라, 프랑스 국립 오케스트라와 변별되는 라디오 프랑스 필 특유의 향취를 만끽할 프로그램은 협연자 없이 올 심포닉 피스로 구성됐다. 첫날의 하이라이트는 정명훈의 드라마틱한 해석이 빛나는 베를리오즈의 '환상 교향곡'이다. 지난 2007년 내한 공연 최대의 히트작이자 바스티유 오페라 시절 리코딩을 통해 전 세계의 팬을 사로잡았던 그 레퍼토리다. 이튿날에는 생상스 교향곡 3번 '오르간'으로 절정을 맞이한다. 정명훈의 카리스마와 그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라디오 프랑스 필의 순발력이 청중의 가슴을 쓸어내릴 것이다. 지난 1996년 런던 심포니와 내한 때 보인 이후 17년 만의 '오르간' 교향곡 지휘라 더욱 의미가 깊다.

일시 9월 24~25일 **장소**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 **문의** 02-599-5743 **관람료** R석 25만원, S석 18만원, A석 12만원, B석 8만원, C석 5만원

BBC 심포니 오케스트라&리처드 용재 오닐



1930년 세계 최초의 방송 교향악단으로 출발한 BBC 심포니 오케스트라는 콜린 데이비스, 피에르 볼레즈 등 지휘자들을 거치며 영국 오케스트라의 자존심으로 우뚝 섰다. 이번 공연에 협연자로 나서는 리처드 용재 오닐과 함께 영국 작곡가들의 작품들을 선보일 예정이다. **일시** 10월 8일 **장소**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 **문의** 1577-5266 **관람료** R석 25만원, S석 20만원, B석 10만원, C석 5만원

이차크 펠만 리사이틀



이 시대가 인정하는 진정한 비르투오소, 바이올리니스트 이차크 펠만의 내한 공연이 펼쳐진다. 가난한 이발사의 아들로 태어나 네 살 때 쇼야마비에 걸리는 불행을 겪었으나, 미국으로 이주해 줄리어드 음대를 졸업하면서 성공적인 음악 커리어를 쌓아 왔다. **일시** 10월 14일 **장소**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 **문의** 1577-5266 **관람료** R석 18만원, S석 14만원, A석 10만원, B석 6만원

This is Modern



안무가 한스 반 마넨은 '블랙 케이크'라는 제목으로 상류층의 와인 파티에서 만취 상태가 되어가는 커플들이 벌이는 코믹한 에피소드를 그린다. 우아하게 차려입은 커플들의 춤과 비장한 차이콥스키, 난해한 스트라빈스키 등의 이미지가 절묘한 조화를 이룬다. **일시** 10월 24~27일 **장소** 예술의 전당 CJ 토월극장 **문의** 1544-1555 **관람료** R석 8만원, S석 6만원, A석 3만원, B석 1만원

드레스덴 필하모닉 내한 공연



담백하고 고풍스러운 동독 특유의 색조로 유명한 드레스덴 필하모닉은 명장 쿠르트 잔데를링의 아들 미하엘을 새로운 수장으로 맞이해 아시아 투어에 나선다. 21세기 새로운 현의 여제로 등극한 바이올리니스트 율리아 피셔가 처음 한국을 찾는다. **일시** 10월 30일 **장소**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 **문의** 02-599-5743 **관람료** R석 22만원, S석 17만원, A석 12만원, B석 8만원, C석 5만원

움직이는 조각, 모빌의 창시자 〈알렉산더 칼더〉 전

공중에서 빙글르 돌아가며 움직이는 모빌을 보며 누가 이 모빌을 처음 만들었을까 궁금해한 적이 있다. 알렉산더 칼더는 바로 이 모빌을 만든 창시자로 이번 삼성미술관 리움에서 그의 대규모 회고전을 만날 수 있다.



삼성미술관 리움은 20세기 조각사에서 중요한 발자취를 남긴 미국 작가 알렉산더 칼더의 대규모 회고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작가의 대표작이며 현대 조각 최고의 혁신 중 하나인 모빌과 스타빌은 물론 초기 중요한 철사 조각과 드로잉, 회화 등 칼더의 전 생애에 걸친 110여 점의 작품이 출품된다. 예술가 집안에서 태어나 자연스럽게 형성된 예술적인 환경 속에서 자란 그는, 미대를 졸업한 후 잠시 삽화가로 일하면서 역동적인 서커스에 매료되어 많은 스케치를 그렸고, 동물들의 움직임에 관심을 갖고 이를 섬세한 드로잉으로 남기기도 했다. 파리에 체류하는 동안 당대의 가장 앞서 가던 미술 경향을 습득한 칼더는 특히 1930년 기하추상 화가인 몬드리안의 작업실 방문을 계기로 추상미술로 전환하게 되었다. 움직임에 대한 관심을 추상적으로 구현한 그의 조각은 빠르게 발전하여 1931년에 크랭크와 모터를 사용해 움직이는 첫 작품을 선보이게 된다. 바로 마르셀 뒤샹이 '모빌'이라 이름 붙인 역사적인 '움직이는 조각'의 등장이다. 이듬해 1932년에 그는 기계를 사용하지 않고 작품을 천장에 매달아 자유롭게 움직이는 새로운 모빌을 제작함으로써 조각사에 유례 없는 '혁신적인 조각'을 창시하였다. 앙감과 좌대에서 해방된 그의 모빌은 조각의 패러다임을 바꾸었고, 공간의 예술로 완성한 모빌은 현대 조각의 가장 혁신적인 작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일시 10월 20일까지 **장소** 삼성미술관 리움 기획전시실 **문의** 02-2014-6900
관람료 일반 8000원, 초중고생 5000원

〈무라카미 다카시의 수퍼플랫 원더랜드〉



아시아 팝아트의 모델을 제시한 무라카미 다카시의 아시아 첫 회고 개인전이 아시아 미술관 최초로 개최된다. 그는 일본의 전통 미술과 대중문화를 기본으로 '수퍼플랫' 개념을 제안해 서구 중심의 현대 미술을 아시아적

감성으로 혁신한 대표 작가로 평가받는다. **일시** 12월 8일까지 **장소** 삼성미술관 플라토 **문의** 02-2259-7781 **관람료** 일반 5000원, 초중고생 4000원

〈로버트 카파 100주년 사진〉 전



카파는 최초의 중군기자로 미술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다. 로버트 카파의 사진에는 인간에 대한 애정이 내포돼 있다. 이러한 요소들이 저널리즘 사진의 속성인 충격적인 고발과 폭로로 흐르지 않고, 그가 신화로 자리

잡는 데 일조했다. **일시** 10월 28일까지 **장소** 세종문화회관 미술관 **문의** 0505-300-5117 **관람료** 어른 1만 2000원, 청소년 8000원, 어린이 7000원

〈이슬람의 보물 창고 왕실 컬렉션〉



스페인에서 중동, 중국, 동남아시아에 이르는 광대한 지역에서 주변의 다른 문명과 교류하며 발전해 온 이슬람 문화 예술의 전면을 보여 주는 367여 점의 대표 유물이 엄선되어 전시된다. 이번 컬렉션은 대영박물관과 메트로

폴리탄미술관에 전시돼 큰 호응을 받았다. **일시** 10월 20일까지 **문의** 02-541-3173 **관람료** 성인 1만 2000원, 청소년 1만원, 어린이 8000원, 유아 5000원

〈라이프 사진〉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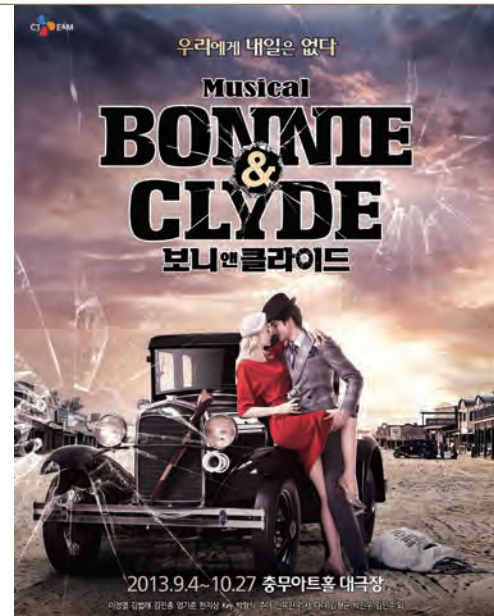


창간 3년 만에 200만 부라는 경이적인 판매를 기록한 〈라이프〉의 표지는 알프레드 에이젠스타트와 같은 당대 최고의 사진가들이 장식했다. 저널리즘의 보조적인 역할에 머물던 사진이 비로소 진정한 의미에서의 포토 저널

리즘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일시** 9월 6일~11월 25일 **장소** 세종문화회관 전시관 **문의** 02-747-7790 **관람료** 일반 1만 2000원, 중고생 1만원, 초등학생·유아 8000원

공연 관람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뮤지컬 <보니 앤 클라이드>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라는 영화로 만들어져 큰 화제를 일으켰던 1930년대 미국의 악명 높은 듀오 보니와 클라이드의 실존담이 뮤지컬로 되살아난다.



<Sulwhasoo> 독자 선물

뮤지컬 <보니 앤 클라이드>를 관람할 수 있는 티켓을 선물로 드립니다. 독자엽서를 통해 응모 가능하며,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관람 일정 9월 29일 오후 3시
공연 장소 충무아트홀 대극장
공연 티켓 R석 6명(1인 2매)
 * 티켓은 관람 당일 공연장에서 드립니다.

뮤지컬 <보니 앤 클라이드>는 1930년대 실존했던 남녀 2인조 강도 보니와 클라이드의 실제 이야기를 배경으로 한 작품으로, 미국 역사에서 악명 높은 듀오이자 대공황 시기 미국 젊은이들의 공감을 불러일으켰던 세기의 커플을 소재로 한다. 겁 없이 사회에 저항하던 그들의 러브스토리 와 범죄 행각은 1967년 영화로 만들어졌으며, 한국에서는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소개되어 많은 사랑을 받았다.

이 매력적인 스토리는 뮤지컬로 새롭게 탄생하여 2009년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 2010년 플로리다 사라소타, 2011년 브로드웨이, 2012년 일본 도쿄와 오사카 공연을 거쳐 2013년 9월 4일, 한국의 관객에게 소개될 예정이다.

'프랭크 와일드혼의 최고의 작품'이라는 찬사를 받은 이 작품은, 열정적인 관객의 반응을 얻으며 브로드웨이 관객 사이에서 '꼭 봐야만 하는 뮤지컬'로 꼽히기도 했다. 실제 인물의 역사적인 비디오와 사진들로 연출된 영상과 무대 세트는 이 뮤지컬의 묘미로 꼽힌다.

속박을 싫어하는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 '클라이드'役に 엄기준, 한지상, Key, 박형식이 캐스팅되어 4인 4색의 다채로운 매력을 만끽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도도한 매력을 지닌 주제적

인 성격의 소유자이자 클라이드의 그녀, '보니'역에 리사, 다나, 안유진이, 남다른 통찰력과 큰 배포를 가진 클라이드의 형이자 든든한 조력자인 '벅'역에는 이정열, 김민종이 캐스팅되어 열연을 펼칠 예정이다. 여기에 강인하면서 현명한 그녀, 벅의 아내인 '블렌치'역에는 주아가, 보니를 짝사랑하며 우직한 성격과 따뜻한 감성을 지닌 '테드'역에 김법래 등이 캐스팅되어 화려한 출연진을 자랑한다. S

에디터 신정희 도움 주신 곳 더문에이앤디(02-764-7857)





page 22 | **Quality Life**

Since the olden times, incense has been considered sacred not only in the West but also in the East. Gaining popularity in the Shilla Empire, it spread even farther in the Goryeo Dynasty, becoming deeply rooted in the everyday lives of our Korean ancestors. In particular, the nobles burned incense before reading a book to fill the room with fragrance that clarified their minds. The incense culture was the origin of holistic beauty achieved by refining the body and mind.



page 36 | **See the Detail**

The heart of King Jeongjo, the 22nd king of Joseon, has remained in Hwaseong, Gyeonggi-do. It can be seen in Yungneung, Geonneung, and Suwon Hwaseong, known as the best civil architectural structures from the last Joseon Dynasty. King Jeongjo's love for his father is artistically embodied by the two tombs and the castle walls. In this issue, we explore the magnificent beauty of the Joseon Dynasty architecture.



page 54 | **Art Class**

APMAP (AmorePacific Museum of Art Project) is AmorePacific Museum of Art's mid/long-term project and the first special exhibition of contemporary art. As the museum is scheduled to be moved to Shinyongsan from the current year (2013) to 2017, the project will take place at and around AmorePacific's local offices in Osan, Jeju, Yongin, Seoul, and others. The theme of this exhibition is "Reverscape (reverse+scape)" to explore the presence of certain places and the meaning of the creation and extinction of space.



page 60 | **Meet the Artist**

Porcelain artist Hun Chung Lee became famous when Brad Pitt purchased his work at the 2009 Design Basel Art Fair in Basel, Switzerland. He majored in Porcelain Art at Hongik University and in Sculpture at San Francisco Art Institute Graduate School, and he completed the Ph.D. in Architecture program of Kyungwon University. He is thus active in various fields besides porcelain art, including installation, sculpture, and architecture. Lee is gaining acclaim by presenting traditional porcelain with a modern interpretation.

page 66 | **The Thesaurus of Sulwha**

This issue introduces ginkgo, the precious fruit that's abundant in autumn, and its leaves. Our Korean ancestors gathered green ginkgo leaves before the summer heat disappeared, and dried or fermented them for storage. When the heat went away in October, they would pick and eat the ginkgo fruits to energize their bodies. This issue's food book introduces how the sweet rice, tea, and wine prepared with the ginkgo leaves and fruit use nature to benefit the body and mind.



page 76 | **Trip of Korean Music**

In this issue, we visit Namwon, Jeonbuk, the home of Pansori and the center of Korean folk music. We take you to the onstage performance at Wanwoljeong, Gwanghanru, the origin of Chunhyangga, and meet with In Sam Jeon, the great singer of Dongpyeonje, to learn the characteristics of the songs of Namwon. We also visit the Changegeuk performance of Namwon National Gugak Center's Changgeuk team, which boasts 20 years of great acting and beautiful voices.



page 82 | **Sulwha Cultural Exhibition**

In the olden times, the Korean people were known as the “archers of the East.” In the past, archery was both a means of entertainment that brought the nobles and commoners together in festivals and a means of discipline, helping them concentrate. Moreover, the nobles combined archery, brush, and music for entertainment, and archery was often used to evaluate the character of people. This issue explores the archery culture that penetrated the Korean culture, with various meanings, to trace the national character of Korea that still exists today.



page 86 | **Sulloclawon(雪綠茶園)**

This issue introduces the five products representing the “Scenes of Jeju.” The hidden scenes of the heavenly island of Jeju are expressed by the rich tastes and flavors of blended tea. The set contains the Oriental aroma tea “Meditation of Rain,” the five-grain tea “Song of the Wind,” the tangy citrus and fresh green tea blend “Sunny Hill,” the tropical fruit tea “Golden Hello,” and the sweet pear and green tea blend “Walking under the Moonlight.”



설화수를 사랑하는 독자를 위한 특별한 선물

(주)아모레퍼시픽 설화수 VIP 고객을 위한 고품격 고은여성문화지 <Sulwhasoo>는 여러분과 함께 더 나은 여성 생활 문화지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언제나 독자와 가까운 자리에 있고 독자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자 합니다. 고은여성문화지 <Sulwhasoo> 편집부 앞으로 독자 엽서를 적어서 보내 주세요. 보내 주신 내용은 알찬 기사 작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칭찬보다 신선한 아이디어 제안과 따끔한 질책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독자 엽서를 보내 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응모 방법** 고은여성문화지 <Sulwhasoo> 내의 독자 엽서로 우편을 이용해서 응모
- 응모 마감** 2013년 10월 15일까지 (뮤지컬 관람권 응모 마감은 9월 30일까지)
- 증정 선물** 설화수 미안피니셔, 뮤지컬 <보니 앤 클라이드> 관람권
- 당첨자 발표** 2013년 11/12월호 독자 선물 당첨자란 참조
- 문의** 02-709-5525



설화수 미안피니셔(5명)

아침과 저녁 스킨케어의 마지막 단계에서 사용하여 피부의 생(生) 윤기를 살려 주는 제품입니다. 녹차와 함께 포제한 홍삼 성분이 피부를 탄력 있게 만들어 하루 종일 생기 있는 피부 상태로 유지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문의 080-023-5454



뮤지컬 <보니 앤 클라이드> 관람권(6명)

'프랭크 와일드혼의 최고 작품'이라고 찬사를 받는 뮤지컬 <보니 앤 클라이드>의 공연 관람권을 6명(R석, 1인 2매)에게 선물로 드립니다. 10월 중 관람할 수 있으며, 티켓은 관람 당일 충무아트홀 공연 현장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93페이지 참조

7/8월호 독자 선물 당첨자 명단

설화수 미안피니셔(5명)

- 양희영 부산 사하구 신평2동
- 김영숙 강원 춘천시 금강로
- 이선희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 박혜윤 광주 광산구 산월동
- 도춘자 울산 남구 달동

뮤지컬 <잭 더 리퍼> 관람권(8명)

- 김일향 서울 마포구 합정동
- 이향재 서울 서대문구 홍제3동
- 강성일 경기 의정부 호원2동
- 이윤정 서울 강동구 암사동
- 김인나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 정영옥 서울 서대문구 현저동
- 박영희 강원 춘천시 퇴계동
- 이순향 서울 종로구 부암동

★ 7/8월호 당첨자 선물은 9월 30일까지 보내 드립니다.